



2020년
2월

우측 상단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스마트폰으로 '안산톡톡'을 볼 수 있습니다. ※ 안산톡톡(talktalk) : 톡톡(talktalk) 튀는 이야기(talk)가 가득한 톡톡(talktalk)한 소식지!



날씨가 추워도 함박웃음 활짝! 겨울왕국 속으로 온가족이 함께.
안산 썰매장에서 눈썰매타고 씽씽~ 어른에게는 추억을, 아이에게는 동심을...
여기는 살맛나는 생생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안산' 입니다.

03 특집

올해 달라지는 제도

경자년 새해가 벌써 한 달이 지났다. 매년 달라지는 제도가 많은데, 올해는 어떤 제도가 바뀌는지 알아보고 현명하게 생활해보자.

07 인터뷰

김길식 안산 그리너스FC 신임 감독

새 시즌을 앞두고 그리너스 FC에 선임된 새로운 사령탑, 김길식 신임 감독을 만나 소감과 앞으로의 목표를 들어봤다.

12-13 기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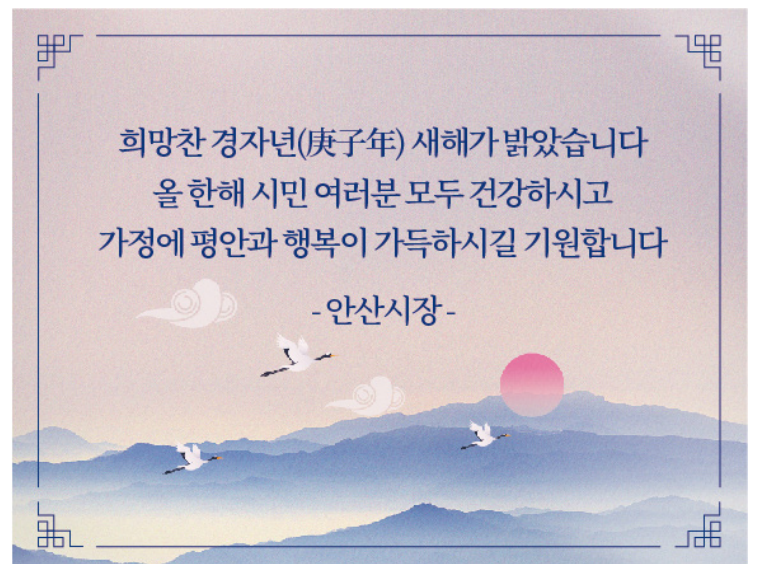
안산의 겨울 2배 즐기기

추위도 피하고 교양도 쌓고 아이들 체험학습도 해결할 수 있는 곳! 1석3조, 안산의 볼거리 많은 박물관과 미술관을 주목하자.

16 도시의 삶

다문화 거리에서 즐기는 세계 차(茶) 문화

중국,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인도, 네팔 등 아시아 다양한 국가의 차를 한 번에 만날 수 있는 원곡동 다문화거리를 소개한다.



Book, better ANSAN

안산시민과 함께 선정하고, 함께 읽고, 함께 이야기 나눌 책! 2020 안산의 책

2020

One City One Book

안산의 책

안산의 책은?

한 도시의 시민이 한 권의 같은 책을 읽고 함께 이야기 나눈다면 어떨까요?
안산시는 2011년부터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운동을 전개했으며,
2015년부터 '한 도시 한 책 읽기(안산의 책)'로 확대했습니다.
선정된 안산의 책을 중심으로 안산시 도서관에서는 다양한 독서진흥사업을 진행합니다.



2020
안산의 책
이렇게
선정되었습니다!

517

안산시민의 도서 추천
(총 517권 접수)



안산의 책 선정위원회 구성
(대학교수, 교사, 사서, 작가, 시민)



1차 선정위원회에서
부문별 5권의 후보도서 선정



어린이·청소년 서포터즈 모집,
후보도서에 대한 의견 청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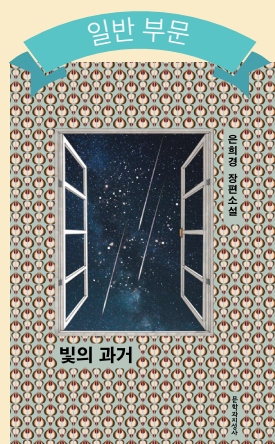


시민 선호도 조사 실시
(1·2위를 최종 후보도서로 선정)

3

2차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안산의 책 부문별 각 1권 선정

안산시민과
함께 선정한
2020
안산의 책은?



빛의 과거

(은희경 / 문학과지성사 / 2017)

(선정평) 1970년대 어느 여자대학교 기숙사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다양한 인간상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며 그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한다. 문장의 깊이가 있는 소설로, 다름과 섞임을 이해하고자 하는 안산시민을 위해 이 책을 추천한다.



페인트

(이희영 / 창비 / 2019)

(선정평) 국가에서 센터를 설립해 아이를 키워주는 양육 공동체가 실현된 미래 사회를 배경으로 청소년이 부모를 직접 면접을 본 뒤 선택한다는 발상이 신선하다.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인지, 나아가 가족의 의미란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어 이 책을 청소년에게 추천한다.



아름다운 것은 자꾸 생각나

(신현이 / 문학동네 / 2018)

(선정평) 아름다운 것은 멀리서가 아닌 주변의 작은 것에서도 찾을 수 있는 동화로, 전반적인 연령대의 어린이가 쉽게 읽을 수 있으며 짧지만 생각할 거리를 주는 책이다. 우리 주변의 일상을 긍정적이고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 줄 이 책을 어린이에게 추천한다.



미리 알아두면
앞서갈 수
있어요



올해 달라지는 제도 및 생활정보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1학기부터 시행

사업 1단계로 기초생활수급가정, 장애인 학생, 다자녀가정 셋째 이상부터 지원한다. 29세 이하 대학생 본인과 가구원(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1인 이상이 공고일 및 지원일 현재 안산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해서 10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문의 : 안산시 교육청소년과(031-481-3453)

아이돌봄서비스 시스템 개편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창구를 웹페이지에서 전용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확대하여 이용자가 보다 간편하게 서비스를 신청·확인·취소·변경할 수 있다. 신청 시 대기 순번, 예상 대기기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문의 : 안산시 여성가족과(031-481-2604)

경유차 폐차보조금 올해부터 차등 지급

폐차보조금이 경유차 구매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폐차한 차주에게 우선 보조금의 70%가 지급된다. 이후 4개월 이내 경유차가 아닌 다른 차량을 구매할 경우 30%가 추가 지급된다. 단, 경유차 말고 대안이 없는 3.5t 이상 대형 차량은 이전처럼 보조금(최대 3천만 원)을 100% 지급한다.

문의 : 안산시 환경정책과(031-481-2247)

결혼이주여성의 자립·자활 지원 강화

결혼이주여성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거주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주여성에게 집중 사례관리를 지원한다. 전화,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모국어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을 독려하고 멘토-멘티, 취업연계 등 사례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초기 정착지원을 강화한다.

문의 : 안산시 여성가족과(031-481-2604)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통합

노인 돌봄 서비스를 통합하여 안부확인, 가사지원, 병원동행, 지원연계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 서비스의 신규 신청은 3월부터 시작되며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문의 : 안산시 노인복지과(031-481-3351)

최저임금이 시급 8천590원으로 오르며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지금까지 300인 이상 사업장에 도입되었던 주 52시간 근무제가 올해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또한 법정공휴일 적용 대상은 공무원에 한정되어 왔는데 300인 이상 기업 노동자들도 국가가 지정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 받는다.

문의 : 고용노동부 콜센터(국번없이 1350)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노인 단독가구의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상향 조정되었다. 월 소득 148만원, 부부가구는 236만8천원으로 인상되어 지급 범위가 넓어졌다.

문의 : 안산시 노인복지과(031-481-3351)

종이상자 자율포장서비스 금지

대형마트에서 포장용 테이프와 끈이 사라졌다. 종이상자는 그대로 제공되지만 장바구니를 채기는 것이 좋겠다.

문의 :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044-201-7352)

어린이집 연장보육 강화

3월부터 오후 4시까지 제공되는 기본 보육에는 현행 담임교사가 배치되고 오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는 연장보육 전담교사가 별도로 배치되어 운영된다. 3~5세 미만 유아 가정은 필요한 때 이용가능하며 0~2세 영아 가정의 경우 장시간 보육의 필요성이 확인되면 이용가능하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044-202-3556)

내일배움카드 통합 개편

실업자와 재직자로 분리 운영되었던 '내일배움카드'를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하게 된다. 경제 활동 상태에 따라 카드를 바꾸는 불편 없이 한 장의 카드로 계속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유효기간을 1~3년에서 5년으로 연장, 지원한도도 현행 200만~300만원에서 300만~500만원으로 높아진다.

문의 :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044-202-7316)

부부 동시 육아휴직 가능

2월28일부터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육아휴직급여도 부모 모두에게 지급되지만, 육아휴직을 따로 쓸 때보다 줄어들어 첫 3개월 급여한도는 통상임금의 80%만 받게 된다.

문의 : 안산시 보육정책과(031-481-2304)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기존 카드형 운전면허증과 효력이 같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도입되어 휴대하지 않아도 되고 분실과 위·변조 위험이 사라지게 된다. 기존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본인 인증 서비스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상반기에 도입된다.

문의 : 경찰청 교통기획과(02-3150-2153)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

성범죄자가 실제 거주하는 읍·면·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는 스마트폰을 통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서 수신을 신청하면, 본인인증 후 언제 어디서든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여성가족부(02-2100-6406)

여권 변경

일반여권 표지가 남색으로 바뀐다. 내용과 사진은 레이저 인쇄가 되며 주민등록번호는 삭제된다. 또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 폴리카보네이트(PC) 재질로 제작된다. 2020년 12월부터 차세대 전자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문의 : 외교부 여권과(02-733-2114)

안산시 2021년까지 모든 초등학교 인근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제2의 민식이’ 나오지 않도록 발 빠른 조치



안산시가 ‘제2의 민식이’가 나오지 않도록 2021년까지 관내 초등학교 40개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카메라(무인교통단속CCTV)를 설치할 예정이다.

현재 안산시 내 어린이보호구역은 모두 148곳으로 초등학교 54곳, 유치원 등 보육시설 93곳, 특수학교 1곳이다. 이 가운데 초등학교 14개교의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이미 무인교통단속CCTV가 설치돼 운영 중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9월11일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

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故) 김민식 군과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시는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예산과 인력을 집중 투입하고 각 학교당 1곳에 무인교통단속CCTV를 1대씩 설치할 방침이지만 현장조사를 통해 2대 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대다수 등·하원을 부모님과 함께하거나 좁은 도로가 많은 어린이집은 이번 설치계획에서 제외됐지만 마찬가지로 현장조사를 통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설치할 방침이다. 무인교통단속CCTV가 설치되지 않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경찰과 녹색어머니회 등의 지원과 함께 ▲과속경보표지판 설치 ▲노란신호등 교체 ▲발광형표지판 설치 ▲교통정온화(회전교차로, 차로폭 축소, 지그재그형 도로 등) 시설 설치 등을 통해 안전관리에 나서고 있다. 이를 통해 어린이 안전사고가 줄었는데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8년 31건에서 2019년 11월 기준, 22건으로 29% 줄었다.

이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상시적으로 실시, 어린이 안전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시는 관내 초등학교 무인교통단속CCTV 설치가 마무리되면 안전사고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6년 경기도의 스쿨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효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교통사고 발생건수 33% 감소 ▲제한속도 초과비율 43% 감소 ▲신호준수율 37% 증가 등 모든 지표에서 우수한 효과가 입증됐다.

시 관계자는 “교통시설물 강화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현저히 줄었지만 아직도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30km/h를 초과하는 차량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교통안전에 가장 취약한 어린이를 위한 시설을 최우선적으로 개선해 안전도시 안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무인교통단속CCTV 설치 외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호울타리 안내표지판, 시인성 향상 표지판등을 제작하며 교통약자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문의 : 안산시 도시정보센터(031-481-3382)

안산시 보훈명예수당 나이제한 폐지, 65세 미만에게도 지급

2021년까지 보훈회관 건립...국가유공자·유족 복지 지원 나서

안산시는 올해부터 65세 이상 국가유공자에게만 지급하던 보훈명예수당을 65세 미만에게도 확대 지급한다.

시는 지난해 12월24일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 나이 제한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 조례 개정으로 나이에 상관없이 안산시 국가유공자 모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해 나라사랑을 실천한 시민을 존중하고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이 자긍심을 갖고 영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예우를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조례 개정으로 1천50명의 수급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6억3천만 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지난해에는 3천248명에게 24억9천여만 원이 지급됐다.

올해에는 보훈명예수당 확대뿐 아니라 시에서 보훈단체에 지원하는 연간운영비 보조금을 단체별로 300만 원

씩 인상하고 차량운영 지원, 선양사업 지원 등 단체별 복지 사업도 추가 예산을 지원하며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위한 복지에 힘쓸 예정이다.

또, 시는 국도비 15억 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78억여 원을 들여 상록구 본오동 878-2번지에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2천160㎡ 규모의 보훈회관을 건립할 예정이다.

이곳에는 보훈단체실, 향군단체실, 대강당, 물리치료실 등이 갖춰질 계획이며 2021년 준공을 목표로 2019년 11월 설계용역이 마무리됐다.

시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에게 보답하는 선양사업에 앞장서고 유공자와 가족들이 명예와 자긍심을 갖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호국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해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으로 독립운동가 후손과의 해외



보훈회관 조감도

독립운동 역사유적지 탐방 추진 및 안산시 3·1운동 이르기 특강을 진행하는 한편 1천500여명의 국가유공자에게 명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문의 : 안산시 복지정책과(031-481-2861)



우리집 음식물쓰레기 분쇄기 괜찮을까?
불법? 사용하는 사람도 과태료?

사용 가능한 오물 분쇄기는?
한국상하수도협회(www.kwwa.or.kr)에서 인증 받은 96개의 주방용 오물 분쇄기
※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품 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사용자에게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올바른 주방용 오물 분쇄기 사용법

- 1 제품 작동 메뉴얼 확인
- 2 음식물 쓰레기만 넣기
- 3 주기적으로 옥내배수설비 청소 및 관리

주방용 오물 분쇄기 불법 개·변조 예시

- 1 회수통을 제거하는 경우
- 2 회수통 내부에 1차 분쇄부와 직결되는 배관을 설치한 경우
- 3 회수통 내부 거름망을 제거하는 경우

안산시 하수과 ☎ 481-2582

‘젊은 시각으로 안산을 소개한다’ 제2기 생생드리머 학생기자단 위촉

“안산 매력 학생기자단이 잘 전달해주길…적극 지원”

‘2020 안산 방문의 해’를 맞은 올해, 청소년의 눈으로 안산시 구석구석을 홍보하게 될 제2기 ‘안산시 생생드리머 학생기자단’이 위촉식과 함께 본격적으로 활동에 나섰다.

1월14일 안산시청에서 열린 위촉식에는 공개모집으로 선정된 학생기자단 51명(중학생 13명·고등학생 5명·대학생 33명)이 참석해 위촉장과 기자증을 수여받았다.

이들은 내년 말까지 안산시 곳곳을 누비며 안산9경(景)으로 대표되는 안산의 아름다운 명소와 관광지를 소개하는 한편 국제거리극축제와 김홍도축제 등 안산의 다양한 축제와 행사, 소소한 일상과 유익한 정책 등을 젊은 시각으로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안산시 홍보대사 역할을 맡게 된다.

이들이 작성하는 기사는 안산시 공식 블로그를 통해 시민들에게 전달되며 특히 ‘2020 안산 방문의 해’를 맞아 다양한 홍보마케팅이 필요한 부분을 학생기자단이 채워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는 위촉식을 통해 현재의 안산과 미래의 비전을 함께 나누고 기자로서의 다짐을 카드에 적어보기도 하고 블로그용 기사 작성법과 활동요령 등에 대한 오리엔테이션도 진행했다.

향후 소셜미디어 교육과 워크숍 등을 통해 학생기자단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학생기자단 내에 영상기자단, 사진기자단 등 특화 기자단 운영을 통해 안산시 SNS의 콘텐츠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유튜브 등 다양한 뉴미디어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변화 속에서 안산의 매력적인 모습을 학생기자단이 잘 전달해주길 바란다”며 “학생기자단 활동이 더욱 활성화



화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안산시는 지난해 학생기자단을 최초로 구성해 KBS 인재개발원 위탁교육을 통해 ‘꿈꾸는 방송학교’ 등 기자 소양교육을 실시했고 학생기자의 블로그 기사가 포털에 메인으로 게시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시는 지난해 대한민국 블로그어워드에서 공공부문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편, 학생기자단이 작성하는 기사는 공식 블로그 외에도 분기별로 발행되는 학생소식지 ‘안산드림펜’에 실리며 안산드림펜은 이메일(hsh212@korea.kr) 또는 안산시청 공보관실(031-481-2039)로 신청하면 무료로 구독할 수 있다.

세금고민! 이제 안산시 마을세무사와 상담하세요

취약계층·영세사업자 세무 고민 해결



안산시는 시민의 생활 속 세금에 대한 고민 해결을 돕기 위해 제3기 마을세무사를 위촉하고 세무상담 서비스를 시작했다.

마을세무사는 한국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들의 재능기부 형태로 영세사업자 등 평소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시민에게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다.

시 관계자는 “세무상담이 필요한 지역 주민들이 마을세무사들로부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생활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1월14일 시청 상황실에서 ▲박금서(일동·부곡동) ▲이영모(초지동·반월동) ▲정광영(본오2·3동) ▲최장용(중앙동·호수동) ▲형천호(선부1·2·3동) ▲황인섭(안산동·월피동) ▲황인철(사동·사이동) ▲윤두영(고잔동) ▲안진우(성포동·와동) ▲이기동(대부동) ▲권재원(원곡동·신길동·백운동) ▲백종갑(해양동·부곡동), 총 12명의 마을세무사를 위촉했다.

제3기 마을세무사는 2021년 12월31일까지 2년간 활동하며 안산시 25개동을 담당 지역별로 나눠 주민들의 세금관련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게 된다.

마을세무사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시청 홈페이지 및 민원실,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된 홍보자료와 민원콜센터 등에서 담당 마을세무사를 확인한 후 전화·팩스·이메일 등으로 1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1차 상담으로 부족하면 사전예약 후 추가로 방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능기부 형태의 제도로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보유자나 일정 소득 이상의 사업자는 상담이 제한되고 세무신고대행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세무상담이 필요한 지역 주민들이 마을세무사들로부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생활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2016년 6월 제도 도입 후 전화·방문·메일 등을 통해 지금까지 총 800여건의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상담을 진행했다.

문의 : 안산시 공정조세과(031-481-2198)

대부해솔길 안내표지판 정비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시 이미지 제공



안산시가 대부해솔길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안내표지판을 단계적으로 전면 정비하면서 시민은 물론 관광객들이 환영하는 분위기다.

시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2개월에 걸쳐 대부해솔길 7개 코스 구간에 있는 변경 노선 및 파손된 방향안내표지판을 일부 재설치했다. 안내표지판 교체작업은 이미 망가져 있어 수리가 불가능한 표지판은 다시 제작해 설치하고, 방향을 자세히 설정해야 하는 곳은 안내표지판을 추가로 제작해 설치하는 방식으로 완료됐다.

또 해솔길을 찾는 관광객 증가로 새로운 방향표지판 필요성도 커지면서 기존에 안내표지판이 없던 곳에도 새로운 방향표지판을 설치했다. 이에 대해 시민과 타 지역 관광객들의 반응은 “안산시가 대부도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작은 일에도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아 좋다”며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에 박수를 보낸다”고 칭찬했다.

시 관계자는 “2019년 연말부터 안내표지판 정비를 시작해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완료해 잘 정비된 대부해솔길을 걸을 수 있게 될 것이다”며 “안내판이 깔끔하면 해솔길을 찾는 관광객들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안산시 모습을 보게 되고 시의 이미지가 깨끗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 우리도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 : 안산시 관광과(031-481-3408)
김효경 명예기자_poet-hk@hanmail.net

‘내 마을의 주인은 우리’…안산시,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한다

일동, 원곡동 주민자치회 시범동 선정…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업무에 예산 집행까지

안산시는 경자년 새해부터 2개 동을 시범동으로 선정해 주민자치회를 운영, 주민이 스스로 마을의 주인이 되는 풀뿌리 주민자치를 실현한다.

지난 1월2일 일동과 원곡동에서 주민자치회 발대식이 개최됐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가 확대되는 추세에 맞춰 안산시도 상록구 일동과 단원구 원곡동을 시범동으로 선정, 풀뿌리 주민자치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한 주민자치회를 운영한다.

안산시는 지난해 1월 안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같은 해 7월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설명회를 통해 시민에게 알린 후 10월 조례를 공포했다.

시는 시범동 선정계획을 수립한 뒤 일동과 원곡동을 시범동으로 선정해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기 위한 과정을 거쳤다. 일동과 원곡동은 지난해 8~11월 사이 각 동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을 공개모집하고 12월에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되기 위한 필수 조건인 주민자치회 학교 교육을 이수토록 했다. 교육 이수를 완료한 주민 중 일동은 30명, 원곡동은 25명의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 2020년 1월1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했다.

새해 들어 일동은 1월 14일 임시회장을 선출하고 운영세칙을 만들 인원을 구성, 향후 일동이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기 위한 기초 작업에 들어갔고 원곡동 또한 주민자치회장 및 임원진 선출과 주민자치회의 세부사항을 만들기 위한 첫 회의를 진행했다.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을 더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업무를 동과 협의해 진행하게 된다. 주민자치센터의 문화·복지·편의시설과 프로그램 운영 및 읍면동 행정의 자문역할은 물론, 주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업무에 대해서는 동과 함께 수행하거나 주민자치회에 위탁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담당할 수도 있



원곡동 주민자치회

는 것이다.

또한 공공사업 추진이나 행정의 위탁업무, 주민자치업무를 수행할 경우 행정적 지원이나 전년도 주민세 징수액에 상당하는 예산을 지원받는 등 이전과 달리 예산을 직접 집행할 수 있어 마을에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안들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는 장점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앞으로 일동, 원곡동 두 시범동을 통해 주민자치회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주민자치회를 통해 우리 마을에 대한 관심,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주민 스스로의 참여의식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고 민주시민으로 한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안산시는 일동, 원곡동의 주민자치회 시범동 운영 후 안산시 25개동으로 주민자치회를 점차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박미영 명예기자_uzuin70@naver.com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희망콘서트’

안산희망재단·한사랑병원 주최, 사각지대 청소년 지원



선부 고려K타이거즈



이규원 듀오



지혜준 마술사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희망콘서트’가 연말 추위를 녹이는 열정적인 공연으로 성황리에 개최됐다. 지난해 12월27일 단원구 고잔동 락아트센터에서 안산희망재단과 한사랑병원 주최로 진행된 희망콘서트는 실력과 공연진들과 태권도, 마술 공연 등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이 펼쳐져 관객들의 호응을 불렀다.

김종숙 극단이유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희망콘서트는 직장인밴드 서프라이즈 밴드가 포문을 열고, 경수중학교에 재학 중인 보컬 선지수 학생, 태권도 시범단인 선부 고려K타이거즈, 안산 출신의 국가대표 마술사 지혜준 씨, 가수 이규원 듀오, 버스킹덤, 옥슨 밴드의 최초 여성보컬인 이은근, 댄스팀 아이피스크루가 무대를 빛냈다.

희망콘서트를 주최한 안산희망재단은 ‘나눔과 순환하는 희망의 공동체’라는 가치를 앞세워, 시민과 기업이 나눔을 통해 우리와 이웃의 삶을 변화시키고 건강한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어 내기 위해 2011년 설립된 안산 지역 재단이자 민간 공익모금재단이다. 재단으로 모금된 기금은 기금별 모금목적에 따라 맞게 배분되며, 배분위원회가 수요처를 발굴하고 공모를 거쳐 엄격한 심사를 통해 집행된다.

안산희망재단은 안산시내 가정해체 등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위기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해당 청소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자립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특히 희망콘서트는 안산희망재단이 여자청소년 쉼터인 한신쉼터를 지원하고자 몇 년 전부터 연말마다 추진해왔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신쉼터의 운영은 지난해를 끝으로 종료됐고, 이에 아쉽지만 청소년들에게 마지막까지 희망을 만들어주고자 2019년 희망콘서트를 열었다고 한다. 이번 콘서트를 통해 모인 수익금은 안산희망재단을 통해 위기청소년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안산희망재단 관계자는 “한신쉼터의 특별한 사연을 소개하며 2020년에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소년, 아동들 모두가 행복하게 성장할 권리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모아내는 과정으로 희망콘서트를 준비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문의 : 안산희망재단(031-411-1984)
황정욱 명예기자_loosedom@hanmail.net

INTERVIEW

젊은 선수를 주축으로 공격 축구하는 끈끈한 팀 만들겠다!

안산 그리너스FC는 2017시즌 K리그 2부 리그에 안산 시민구단으로 창단했다. 안산 와~스타디움을 홈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안산 그리너스FC는 2017·2018 시즌 모두 K리그 2부 리그 10개 팀 중 9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2019시즌은 달랐다. K리그2 3위에도 오르는 등 높은 순위를 유지하다 최종적으로는 5위로 마감했다.

아쉽게 1부 리그 승격을 위한 플레이오프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리그 5위라는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둬 팬들에게 다음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시즌 종료 후 팀을 이끌던 임완섭 감독이 스스로 사퇴의사를 밝히고 물러났고, 안산 그리너스FC는 2019년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김길식 감독을 선임했다.

김길식 감독은 2001년 전남 드래곤즈에 입단하며 K리그에 선수로 데뷔했다. 이후 2007년 루마니아에 있는 오셀룰 갈라치로 이적하며 유럽무대에 도전하기도 했다. 현역 은퇴 후 프로팀 지도자 생활을 시작했고, 대한축구협회 전임지도자로 부임해 U-15, U-16, U-17 대표팀에서 경험을 쌓았다.

2020 시즌을 준비하며 안산 그리너스FC의 새로운 선장이 된 김길식 감독을 만났다.

Q. 먼저 안산 그리너스FC 감독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K리그 감독, 프로팀 감독은 첫 도전인데 소감은?

안산 그리너스FC 감독으로 감독 커리어의 첫 출발을 하게 됐다. 감독으로 선택해 준 구단주와 김호석 대표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고 싶다. 저한테도 너무나 중요하고 새로운 시작이기에 부담감도 크지만, 내가 갖고 있는 능력들을 최대한 발휘해 올 한해 팀을 잘 이끌어가고 싶다.

Q. 안산 그리너스FC와는 어떻게 인연을 맺었는지.

대한축구협회에서 지난 6년간 전임지도자로 하면서 좋은 경험도 쌓고 공부도 했다. 우연히 안산 그리너스FC 감독직 이력서를 넣게 됐고 이렇게 일이 풀렸다. 당연히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에 지원했던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안산 출생으로 학창시절을 보냈다. 원곡초등학교, 원곡중학교를 졸업했다. 부모님은 지금까지 안산에 거주하고 계신다. 감독 지원의 직접적인 이유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안산은 애착이 간다.

Q. 창단 이후 팀 최고 성적을 거둔 2019시즌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2019 시즌은 팀이 창단 된지 3년차였다. 창단부터 함

께 한 기존 선수들이 3년이라는 시간을 거쳐 훈련도 잘 해왔고 발을 잘 맞췄던 결과가 나온 것이라 본다. 팀의 경기력이 올랐고 지난 시즌 빛을 발한 것이다. 물론 임완섭 감독님도 팀을 잘 만들었고 잘 이끌었다. 팬들이 만족할 만큼 그 결과가 정말 좋았다. 전반적으로 팀의 공수밸런스가 좋았고 그래서 좋은 경기가 많았다. 하지만 시즌 마지막 경기들이 조금 아쉬웠고 결정력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다. 이번에 안산 그리너스FC 감독으로 간다고 했을 때 팀 최고 성적인 5위 이상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주변 사람들의 말도 많이 들었다. 사실 부담이 안 된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이다. 좋은 성적을 얻은 만큼 시민들, 팬들의 관심도 더 높아졌다. 이 관심은 부담되지만 좋은 것이라고 본다.

Q. 새로운 감독으로서 팀에 새로운 컬러를 더한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지?

이적 시장에서 기존 선수단의 변화가 많다. 변화 속에 젊은 선수들을 주축으로 팀을 끌어가고자 한다. 육성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현재 선수단 중 젊은 선수들, 그 중 기량 있는 선수를 발굴해서 끈끈한 팀으로 만들고자 한다. 요즘 축구에서 정신력을 강조하면 구시대적으로 본다. 하지만 우리나라 선수들의 가장 큰 장점은 멘탈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운동장에서 쉽게 포기하지 않고 종료 휘슬 울릴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강조하고 싶다.

멘탈이 강하고 끈끈한 그런 팀을 만들고 싶다. 그리고 팀의 스피드도 높이고 싶다. 그래서 관중들이 더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축구, 수비축구가 아닌 공격축구를 하고 싶다.

Q. 안산 그리너스FC의 새 선장으로서 2020 시즌 목표가 있다면?

4강 플레이오프는 꼭 가야겠다는 목표로 삼고 있다. 이 또한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목표로 삼고 2020 시즌을 잘 준비해보겠다.



안산 그리너스FC 김길식 신임감독

Q. 지도자 생활을 시작하고 프로구단 감독의 자리에 처음 올랐다. 축구 지도자로서 장기적인 목표가 있다면?

지도자들은 모두가 비슷한 꿈을 가질 것이다. 언젠가 가능하다면 국가대표 A팀 감독도 맡아보고 싶다. 그 동안 협회에서 연령별 지도자를 해왔는데 감독으로서 역할보다는 코치 역할을 주로 해왔다. 이번에 좋은 기회를 얻었으니 여기서 감독의 역할로 좋은 팀 잘 만들고 후에는 국가대표 A팀 감독에도 도전해보겠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유럽으로 진출해서 지도자 경험도 해보고 싶다.

Q. 안산 그리너스FC는 사회공헌 활동을 많이 해왔고, 시민과 접촉면을 꾸준히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민구단의 감독으로서 팬, 시민과 함께 하기 위한 고민이 있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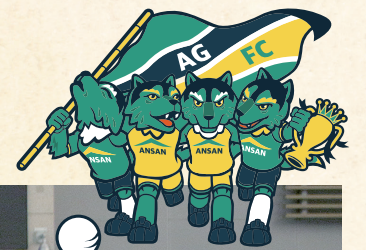
우리가 선수 때는 선수들은 훈련과 운동에만 집중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민구단의 감독이 되다 보니 팬들이 경기장을 찾게하려면 팀과 선수들이 지역에서 시민과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도 우리 선수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시간이 허락된다면 더 다양한 활동 했으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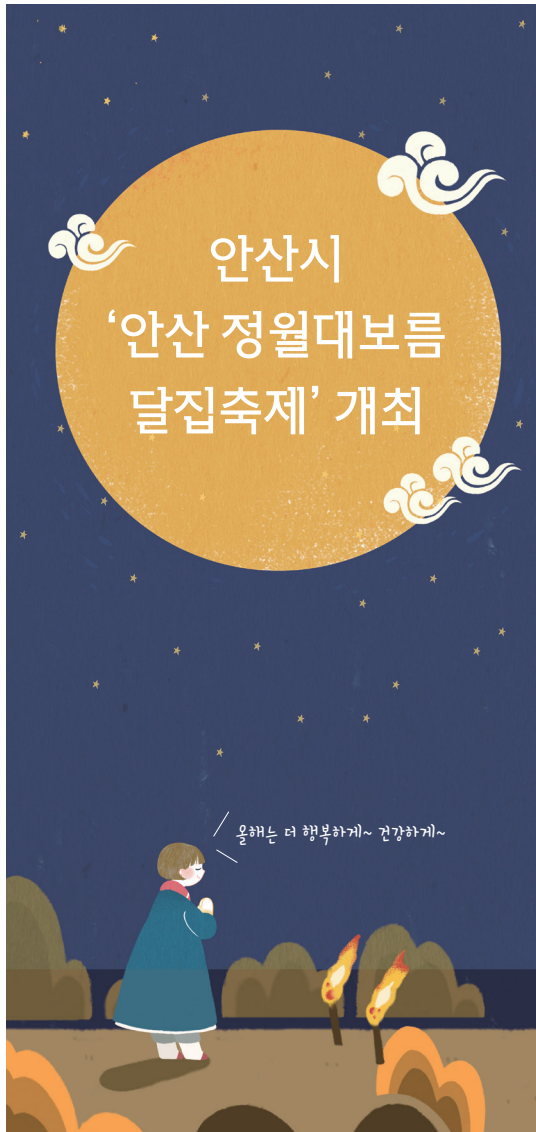
Q. 안산 그리너스FC 팀의 경기를 응원하러 직접 찾아주시는 팬, 안산시민께 한 말씀

안산 시민이 안산 그리너스FC 경기를 보기 위해 와~스타디움을 한 번 더 찾아주시고, 응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한다. 우리 선수들, 스태프 모두 하나 된 모습으로 운동장에서 최선을 다할테니 더 많이 관심 가지고 찾아와 달라.

문의 : (사)안산시시민프로축구단(031-480-2002)
황정욱 명예기자_loosedom@hanmail.net



해외 동계전지훈련을 떠나는 안산 그리너스FC



1년 중 가장 크고 밝게 빛나는 달에게 ‘소원을 말해봐’

2월8일은 우리나라 고유 명절 중 하나인 정월대보름이다. 정월대보름은 음력 1월15일이며 설 이후 처음 맞이하는 보름달로 한 해의 풍년을 기원하고 모든 질병이나 액운을 막고 마을의 무사태평을 기원하던 날이다. 정월대보름의 대표 놀이로는 쥐불놀이, 달집태우기, 다리 밟기, 줄다리기, 더위팔기 등 10여 가지가 넘는다. 정월대보름에는 서로 만나서 주고받는 인사가 ‘내 더위 사가라~’ 이다. 이날 ‘내 더위팔기’를 안하면 여름 내내 더위에 시달린다는 이야기가 있다.

‘설은 나가서 쇠어도 보름은 집에서 쇠어야 한다’는 어른들의 말씀처럼 농경사회였던 우리나라에서 정월대보름은 설보다 더 중요한 명절이었다. 공휴일이 아니어서 명절의 존재감이 약해졌지만 여전히 정월대보름이 되면 각 가정에서는 아침 식전에 귀밝이술을 마시고 오곡밥과 나물을 먹고 부럼을 깨며 대보름풍속을 즐기고 있다.

안산시의 정월대보름 달집축제는 2월8일 오후3시, 안산문화원 주차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축제에서는 소원지 쓰기, 팽

이치기, 널뛰기, 윷놀이, 투호놀이, 활쏘기, 새총쏘기 등 각종 민속놀이 체험마당을 즐길 수 있다. 특히 대표적인 전래놀이인 제기차기는 성인부와 학생부로 나누어 경합을 벌이는 대회로 진행된다.

공연마당에서는 안산시의 향토유적 제31호인 와리풍물놀이, 경기민요, 타악퍼포먼스, 사물판굿, 사자춤 등의 다양한 공연이 펼쳐지고 감골 주민회에서 준비하는 다양한 먹거리와 부럼 나눔도 준비된다.

체험마당과 공연마당이 모두 끝나면 안산 정월대보름 달집축제의 절정인 달집에 시민들의 소원을 적은 소원지를 달아 달집을 태우며 소원을 빌고 다 함께 참여하는 대동놀이가 진행될 예정이다. 주말 오후 온가족의 손을 잡고 안산 정월대보름 달집축제에 참여하며 새해 첫 번째 보름달에게 각자의 소원을 빌어보는 것은 어떨까?

문의 : 안산문화원(031-415-0041~2)
김선영 명예기자_rimmom@korea.com



달집태우기



사자춤

읽고 싶은 신간 ‘지역서점 바로대출제’로 동네서점에서 바로 빌려보세요

안산시 도서관 회원 누구나 월 5권씩 최대 21일까지 대출 가능

책읽기를 좋아하는 김미숙(46·초지동) 씨는 여러 독서모임에 가입해 활동 중이다. 그는 모임마다 매번 선정되는 책을 구입하기가 번거로워 평소 공공도서관을 자주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신간도서 경우 도서관에 미처 입고되기 전이거나, 비치가 돼있어도 인기 있는 신간은 바로 대출되는 사례가 많아 이용에 어려움이 많았다. 안산시중앙도서관은 김 씨처럼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의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관내 지역 서점과 협력해 지역서점 바로대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지역서점 바로대출제는 시민이 가까운 지역 서점에서 책을 무료로 빌려 읽은 뒤 반납하면 도서관에서 구입하는 제도다. 안산시 도서관 회원이면 누구나 월 5권씩 14일간 이용 가능하며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용방법은 먼저 읽고 싶은 도서를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대출 안내 문자가 오면 지정된 서점 중 가까운 서점으로 방문해 책을 빌리면 된다. 신청 후 보통 2~3일 안에 연락이 온다. 이때 서점을 방문할 때는 도서관 회원증을 꼭 지참해야 한다. 대출한 책을 다 읽은 후 다시 서점을 방문 해 도서를 반납하면 된다. 대출기간은 기본 14일이며 1회 7일간 연장이 가능하다. 도서관을 이용

하는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이점과 함께 시민의 동네서점 방문 기회가 많아져 책읽기 문화 확산과 지역 서점을 살리는 상생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김미숙 씨는 “평소 자주 이용하는 동네서점 ‘토닥토닥 관창아’에서 우연히 지역서점 바로대출제 홍보물을 보고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가족이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 편이라 지역서점 바로대출제 서비스 이용가능 도서가 최근 5년 이내의 신간이어야 한다는 점과 월 5권 이내로 대출가능 도서 수량이 제한된다는 점은 다소 아쉽지만, 새 책을 서점에서 대출 할 수 있어서 좋고 무척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서점 바로대출제를 이용할 수 있는 서점은 중앙도서관과 협력서점인 대동서적(사동, 중앙점), 토닥토닥관창아, 한가람문고, 안산문고, 원곡서점, 모모책방으로 이들 중 가까운 서점 어디서나 이용 가능하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안산중앙도서관 홈페이지(<http://lib.ansan.go.kr>)를 참조하거나 중앙도서관 열람팀(031-481-3864)으로 문의하면 된다.

송민아 명예기자_junseo1000@hanmail.net



지역서점 바로대출제가 가능한 안산시내 동네서점



대 동 서 적	안산시 상록구 석호로 235(사동)
	안산시 단원구 예술대학교 9(고잔동)
모 모 책 방	안산시 상록구 네고지1길 14(사동)
토닥토닥관창아	안산시 단원구 초지로 118(초지동)
한 가 람 문 고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 56(선부동)
안 산 문 고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61(고잔동)
원 곡 서 점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107(원곡동)

‘피아체레앙상블’의 연주회를 찾아서

안산문화예술의전당, 2019년을 마무리하다

2019년 12월,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의 대관 일정은 클래식피아노 전공 연주자들이 모여서 만든 비영리 음악단체 ‘피아체레앙상블’의 제9회 정기연주회로 마무리됐다. ‘피아체레앙상블’은 이탈리아어 ‘A PIACERE, 연주자 마음대로 연주하라’란 뜻을 기초해 클래식을 전공한 연주자들이 모여 2009년 창단한 단체이며 다양한 음악적 시도와 구성으로 지금까지 청중들을 만나고 있다.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렸던 12월29일 저녁에 열린 연주회는 전공자뿐 아니라 모두에게 사랑받는 친숙한 곡으로 구성됐고, 출연자 중 한 명인 김진희 씨의 해설이 곁들여졌다. 1부에서는 한 대의 피아노로 솔로 또는 듀오로 라흐마니노프, 차이콥스키, 드보르작, 드뷔시, 롯시니 등 위대한 작곡가들의 대표곡들이 화려하게 연주됐다. 2부에서는 두 대의 피아노로 피아졸라, 생상, 비제 등의 유명 곡을 솔로 또는 여러 명이 다양하게 연주해 관객들의 귀를 즐겁게 했다. 김경진, 김진희, 오예림, 김희란, 용선영, 이은영, 서나영, 송은주 씨 등 8명의 연주자들이 최선을 다해 서로의 음식에 귀 기울이며 연주하는 모습은 특히 아름다웠다. 낯선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모인 청중들은 90분의 시간 동안 몰입했다가 박수로 화답했다. 대학생 박은정(22·성포동) 씨는 “클래식은 곳곳이 앉아서 연주해야 된다는 정석에 얽매이지 않고 연주자가 관객의 참여를 유도하는 분위기가 좋았다”라고 말했다.

김경진 ‘피아체레앙상블’ 리더는 “피아노전공자들이 피아노에 대한 열정과 비전을 공유하며 무대에 오르는 기회를 만들고자 한 것이 이 단체를 만든 첫 번째 목적이고 안산시민께서 클래식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즐겁고 친숙한 음악으로 느끼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움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다”며 “관객과 함께 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고 싶고 앞으로도 계속 전석 무료로 연주회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은 올해도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좋은 행사를 많이 유치할 계획이다.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면 각종 공연전시행사에 대해 이메일과 문자로 알림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기획공연전시 예매 시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이벤트에도 참여할 수 있다.

문의 : 안산문화예술의 전당(031-481-4000)
권소희 명예기자_estateksh@naver.com

경기 시각예술 성과 발표전 생생화화:生生化化

단원미술관에서 오는 3월1일까지...경기도 유망·우수작가 작품 전시

경기 시각예술 성과 발표전 생생화화:生生化化 ‘흠여진 생각, 조합된 경험’이 단원미술관에서 3월1일까지 개최된다.

생생화화는 경기도를 기반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우수 작가와 향후 성장 가능성이 주목되는 유망작가에게 신작 제작을 위한 창작지원금과 비평 워크숍 프로그램, 전시 개최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경기예술창작지원사업’에 기반을 두고 있다.

경기문화재단은 지난해 초 ‘경기예술창작지원사업’ 시각예술분야에서 유망작가와 우수작가 24명을 선정하고 같은 해 9월 고양문화재단 고양아람누리 아람미술관 전시를 시작으로 아트센터 화이트블럭(파주 헤이리 아트벨리)과 단원미술관에서 선정 작가의 작품을 전시할 계획이다..

이번 생생화화 단원미술관 전시는 김원진, 박진희, 최성운, 구수현, 권혜원, 김억, 손광주, 양쿠라, 이재훈, 호상근 작가의 생각과 경험들로 채워진다. 작가들은 개인 혹은 사회적 경험과 결부된 기억들을 현대미술의 다양한 조형 방식과 언어를 통해 재현하거나 재구성한다. 이번 신작들은 지극히 개인적인 내면세계에서 결합한 기억으로부터 현대사회의 구조와 집단에 대한 생각까지 확장돼 폭넓은 주제를 드러낸다.

김원진 작가는 “나에게 있어서 경험한다는 것은 읽어 내려가는 과정이고, 기억한다는 것은 이를 다시 읽어보는 반복적 행위다. 그런 점에서 타인의 문장은 타인의 기억을 만나는 과정이며, 출판된 기록물은 집단의 기억을 은유한다. 의미가 고정된 듯한 기록물은 이

를 읽어보는 순간과 공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된다. 이번 작업에서는 집단의 기억은 사회적인 상황에 따라 재단되고 개인인 나의 기억도 영향을 받으며 그 안에 위치함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전시 담당자는 “전시를 통해 작가 개개인의 경험으로부터 파생된 창작행위들을 공유하고 그것이 우리의 생각하고 경험하는 일상과 어떤 거리감을 가졌는지 그 간극과 마주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작가들과 매칭 된 평론가와 담당 큐레이터 등이 작가들의 작품세계를 토론한 ‘전시비평 라운드테이블’ 워크숍이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선희 명예기자_jamyou70@hanmail.net

관람 정보

- ◇ **관람시간** : 오전 10시~오후 6시 / 월요일 휴관
- ◇ **관람료** : 일반 2천원
할인 : 안산시민, 20인 이상 단체, 초·중·고, 군·경 50%
무료 : 미취학(~7세), 65세 이상, 장애인
- ◇ **문의** : 단원미술관(031-481-0508, 0505)



“나들가게 지정 이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안산시 100여개 나들가게 공동구매, 공동판매 시스템 구축

안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나들가게 유통활성화 지원사업이 영세업체인 동네슈퍼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주목된다. 시는 SSM(대기업슈퍼마켓)과 편의점 확장에 따른 골목상권 침체로 소규모 유통업체가 위기를 겪게 되자 지원 사업을 통한 경쟁력 확대를 모색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나들가게 육성선도지역 지원 사업을 일몰사업으로 진행했다.

현재는 일몰사업 이후지만 그동안 지속적 지원책을 마련해 왔고, 앞으로도 안정화 사업으로 계속 지원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안산시 관내 100여개 나들가게 및 종합소매점으로 사업은 나들가게 조직화 구현(나들가게 협동조합), 공동구매 및 공동 판매 시스템 구축(공동세일전), 자체브랜드 개발(PB상품)등이다.

그동안 시는 이들 나들가게를 대상으로 공동세일전 2회, 지역특화사업 1개 아이 템 이상, 상인교육 및 조직력강화를 위한 워크숍 등을 매년 실시해왔다. 그 결과 시는 2017~2018년, 2년간 연속으로 나들가게 육성선도지역 지원사업 최우수 지역 및 우수 지역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설맞이 세일전과 봄맞이 세일전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있고, 빛과 동지, 성해막걸리 등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의 경우 홍보 및 판로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기업의 신규 상품을 개발하고 나들가게 점주간 조별 간담회 및 워크숍을 실시해 나들가게의 조직화를 지원한다.



특히 올 4월부터는 지역특화사업 및 조직화 지원사업은 물론 바캉스세일전, 추석맞이 세일전, 연말세일전 등 공동 세일전을 추진해 야심차게 지원할 계획이다.

나들가게 초이마트 와동점 김대영 대표는 “소량물품을 구매할 수 있어 좋고, 세일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어 동네마트지만 세일을 한다는 게 너무 좋다”면서 “공동으로 구매 하니 가격도 저렴하고 공동세일 때는 세일전단지도 맞춤형으로 만들어 줘 나들가게 지정 이후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고 고마워했다.

김효경 명예기자_poet-hk@hanmail.net

생활 속 에너지도 절약하고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는 탄소포인트제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 행정복지센터 방문해 신청하세요

지구도 살리고 가계경제에 도움도 되는 알찬 새해계획, 탄소포인트제 가입으로 실천해보자. 탄소포인트제란 더 미룰 수 없을 만큼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시민의식과 실질적인 참여 확대를 위해 도입하고 있는 제도다. 탄소포인트제에 동참하면 에너지도 절약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다.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우리는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삶을 살고 있다.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이용하고, 샤워를 마치고 머리를 말리느라 드라이어를 사용하며 밤새 꽂아두었던 휴대폰과 노트북을 충전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버스를 타거나 또는 승용차를 이용해 출근길에 오른다. 대동소이 할 수 있으나 하루 중 아침의 모습만 살펴보더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다. 이산화탄소는 메탄 등과 결합하여 대기의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주범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생활 속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탄소포인트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일반 가정이나 상업시설, 150가구 이상의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 학교 등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줄여나가면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지급한다. 가입자는 지급되는 탄소포인트에 따라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인센티브는 상·하반기 년 2회

지급된다. 2019년 기준, 안산시의 탄소포인트제 가입자 수는 3만5천371가구로 총 가구의 12.8%가 가입해 경기도 1위의 성과를 내고 있다. 참여율 10%이상 경기도 지자체는 안산시를 비롯해 파주시, 과천시 등 3곳이다. 안산시는 올해 가정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단가를 포인트당 1원에서 2원으로 상향 지급할 계획이며 지급 포인트는 과거 2년간 월별 평균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해 에너지 감축률에 따라 산정된다.

탄소포인트제를 이용하고 있는 가입자들은 “큰돈은 안 될 것 같지만, 의미 있는 활동이라 참여하게 됐다. 사실 탄소포인트제 가입사실도 잊고 지내다가 여름폭염에 전기를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 줄여보자는 마음만 먹고 있었는데, 막상 연말에 깜짝 선물처럼 지급되는 인센티브에 놀랐다”는 후기를 전했다.

안산시는 탄소포인트제에 대한 시민의 더 많은 참여확대를 위해 미세먼지토론회, 캠페인, 홍보물 배부 및 간담회 개최를 추진할 계획이다. 탄소포인트제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과 참여방법은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www.cpoint.or.kr)를 참고하면 된다. 안산환경재단 도시탄소관리팀(031-599-9417)이나 관할 지역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가입할 수 있다.

송민아 명예기자_junseo1000@hanmail.net

☀️ 녹색습관, 집에서 실천해요



안산시, 해외유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 총력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 단계로 격상…확산방지 대책 강화



안산시는 중국 우한시에서 시작돼 아시아를 중심으로 전 세계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 ‘우한 폐렴’이 국내에도 상륙함에 따라 감염병 확산 조기차단에 나서고 있다. 시는 신종 및 해외유입 감염병에 대비한 24시간 긴급대비·대응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설 연휴 직후인 1월28일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관내 의료기관에 중국인 환자를 위한 통역관 등 협력관을 배치하기로 했으며, 많은 외국인 또는 환자가 찾는 의료기관, 외국인주민지원본부에 열감지기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현수막 게시 및 안내 외에도 가두방송도 시행하기로 했으며, 많은 중국교포가 거주하는 원곡동 다문화거리 등을 중심으로 촉각을 세우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우한 폐렴은 국내에서도 1월27일 기준 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관리 당국은 중국 우한시 방문자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한다. 정부는 국내에서도 환자가 발생하자 감염병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다.

해외 감염병이 지역사회에 전파되거나 전국적으로 확산되면 ‘심각’ 경보가 발령된다.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경우에만 감염되는 ‘제한된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는 우한 폐렴의 정확한 감염력이나 감염경로는 질병당국이 조사하고 있다.

안산시는 중국교포가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는 원곡동 다문화거리 등을 중심으로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를 맞아 방문객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질병관리본부·경기도·지역의료기관과 협력해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예방관리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설 연휴 전부터 고려대 안산병원과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에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며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고 있다.

시는 관내 의료기관에서 해외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ITS-DUR)을 이용해 의심환자 내원 시 보건소로 신고할 수 있도록 당부하는 한편,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해외여행을 앞둔 시민을 대상으로 예방물품을 배부하고 해외여행 중 일상생활 감염병 예방수칙 가이드를 시청 홈페이지, 전광판, SNS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해외여행시 수산물, 가금류, 야생동물 판매 재래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여행 후 입국 시 발열 및 호흡기증상이 있는 경우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한다”며 “중국 우한시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 증상이 있을 경우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1339) 또는 관할 보건소(상록수보건소 031-481-5999, 단원보건소 031-481-6363)로 즉시 신고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올해부터 청각장애 어르신 치매조기검진 수어통역 지원



안산시 상록수보건소는 2019년 12월 24일 (사)경기도농아인협회 안산시지회와 함께 ‘청각장애 어르신 치매조기검진 수어통역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오전 11시 상록수보건소 상황실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박건희 상록수보건소장, 김문정 (사)경기도농아인협회안산시회장을 비롯해 치매안심센터 관계자 및 수어통역사 등 10여명이 참석해 청각장애 어르신에 대한 수어통역 서비스 지원에 뜻을 함께 했다.

치매조기검진은 치매안심센터 주소지 관할 거주 만 60세 이상으로 치매로 진단 받지 않은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검진을 문답형식으로 실시하고 있어 청각장애인의 치매조기검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상록수보건소는 이번 협약으로 치매안심센터가 매월 둘째 주 금요일 오후 3~4시에 청각장애 어르신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하게 돼 소통부재에 따른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것으로 보고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구성원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치매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관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상록수보건소 관계자는 “청각장애 어르신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치매조기검진 지원 등으로 어르신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더불어 살아가 수 있는 환경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상록수보건소 치매안심센터팀(031-481-5857)

한센 피부병 무료 검진 안내

◇검진과목 : 한센병, 습진, 무좀, 아토피 ◇검진대상 : 안산시민 ◇검진비 : 무료

◇검진일정 / 검진장소

진료일	상록수보건소(오전)	단원보건소(오후)
2020년 2월 13일(목)	오전 10시~12시 상록수보건소 2층 보건교육실	오후 1시30분~3시 단원보건소 1층 보건교육실
2020년 5월 14일(목)		
2020년 8월 20일(목)		
2020년 11월 19일(목)		

* 검진일정 및 장소는 기관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검진팀 : 한국한센복지협회 경기인천지부 이동진료팀

◇문의 : 상록수보건소(031-481-5986) / 단원보건소(031-481-6364)

자살 유족 지원 안내

◇기간 : 연중 진행 ◇장소 : 상록수보건소 3층 안산시자살예방센터

◇대상 : 자살 유족(자살로 인해 가족, 친구, 이웃을 잃은 대상자 - 세부 면담 필요)

◇내용

- 애도 상담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예약운영)
- 사례 관리 : 대면, 비대면 상담 및 지역사회 심리 상담 연계
- 자살 유족 자조 모임 및 프로그램 : 매월 둘째 주 월요일 오후 2시(센터 사전 문의 필수)
- 자살 유족 치료비 지원 : 1인당 140만원(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입원, 심리검사, 심리상담)

◇문의 : 안산시자살예방센터(031-418-012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수칙

감염병 예방수칙



손바닥, 손톱 밑
꼼꼼하게 손씻기!



기침할 땐
옷소매로 가리기!



기침 등 호흡기 증상자는
의료기관 방문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의료기관 방문 시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알리기



감염병 의심될 땐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상담

중국 유행지역 여행 시 주의사항



동물(가금류 포함) 접촉 금지



현지 시장 및 의료기관 방문 자제



발열, 호흡기 증상자(기침, 호흡곤란 등)
접촉 금지



· 기침 시 마스크 착용
·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



중국 유행지역 여행 후 입국 시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귀국 후 14일 이내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또는 보건소 상담

겨울 나들이

유리를 품은 박물관 유리섬박물관

이탈리아 베네치아에 유리공예로 유명한 무라노 섬이 있다면 한국의 무라노라고 불리는 대부도에는 유리섬이 있다. 대부도 유리섬은 4만3천㎡ 규모의 드넓은 공간에 최고의 유리조형 작가들이 직접 유리로 수작업해 만든 환상적인 작품들이 실내외에 아름답게 전시돼 유리 공예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이다.

입구에서 표를 사고 한참 걸어 들어가면 유리섬 미술관이 나온다. 미술관으로 들어가면 유리공예 작가들의 작품을 기획 전시하는 작가 전시관과 자연을 유리로 재현한 테마 전시관으로 구성되어 있어 유리 공예의 아름다운 진수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져 있다.

미술관 2층에는 유리공예 시연장이 있다. 최대 200명이 동시에 관람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극장식 유리공예 시연장으로 1천200도 이상 고온의 유리를 불로우 파이프(Blow pipe)를 이용해 다양한 유리 조형물을 제작하는 과정 전체를 공연 형식으로 관람할 수 있다. 유리섬에 입장한 모든 방문객에게 하루 3회, 무료로 유리공예 시연을 제공하며 시연은 매주 화~일요일 오전 11시30분, 오후 2시30



분, 오후 4시30분에 30분씩 진행된다.

또한, 유리섬 박물관에는 유리공예 작가와 함께 유리에 대해서 배우고 직접 공예품을 체험할 수 있는 국내 최대의 유리 공예 체험장이 있다. 뜨거운 유리를 불로우 파이프에 말아 올려 입으로 불면서 만들어 보는 블로잉체험과 내열 유리봉을 녹여 액세서리를 만드는 램프워킹체험은 7세 이상부터 가능하다.

고압으로 고온 모래를 뿌려 유리컵의 표면을 깎는 샌딩 체험과 유리컵에 전용 안료로 그림을 그린 후 오븐에 구워 완성하는 글라스페인팅 체험은 모든 연령이 참여할 수 있다. 유리섬을 찾은 연인 및 부부를 대상으로 행운반지 만들기, 소원팔찌 만들기, 행복잔 만들기 등의 체험도 새롭게 구성돼 인기를 끌고 있다.

유리섬 박물관 내 위치한 맥아트 미술관에는 아름다운



유리로 직접 만든 공예품을 전시·판매하는 아트샵과 다양한 현대 예술 작가들의 작품들을 전시하는 공간이 있어 다양한 볼거리를 감상할 수 있다.

박물관 외에도 100명이 함께 식사를 즐길 수 있는 무라노식당, 분위기 좋은 카페, 바닷길을 따라 사랑을 테마로 한 조각작품들과 함께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유리섬 둘레길 '러브로드' 등이 마련돼 방문객을 맞고 있다.

아름답게 꾸며놓은 정원에 자연이 그대로 조화를 이루며 서해의 갯벌과 밀물 때 들어오는 바다가 만든 호수를 감상할 수 있는 유리섬 박물관에서 최고의 주말을 보내기에 손색없다.

김영미 명예기자 flowerym@hanmail.net

유리섬박물관

- ◇ 주 소: 안산시 단원구 부흥로 254
- ◇ 관람시간: 오전 9시30분~오후 6시
(토요일 오후 9시까지 운영)
- ◇ 휴 관 일: 매주 월요일, 12월31일, 설·추석 당일의 전날
- ◇ 이용요금: 일반 8천원 / 청소년 7천원 / 초등생 6천원
장래3급 이상, 65세 이상 할인
- ◇ 단체예약: 평일 20명이상(입장료, 체험비, 식사비용 할인)
- ◇ 문 의: 유리섬박물관(032-885-6262)

삶의 체험 박물관 안산향토사박물관

안산향토사박물관은 안산의 유구한 역사와 함께 선사시대부터 근현대사에 이르기까지의 안산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박물관이다. 안산향토사박물관이 위치한 안산문화원은 1984년 건립된 3층의 건물로 이뤄졌다. 1층에는 안산향토사박물관과 어린이 체험실 '하하호호'가 있고 2층에는 안산문화학교, 3층에는 문헌자료실과 문화 사랑방 그리고 안산향토사연구소가 있다.

안산향토사박물관에서는 안산의 역사와 함께 옛사람들의 생업이었던 농기구와 의식주 관련 생활도구들을 관람할 수 있다. 전시실을 한 바퀴 돌아 나오면 어른들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다듬이와 맷돌체험이 가능한 '우리 민속 체험장'과 어린이들이 놀이로 안산시의 역사와 친해지는 '하하호호 어린이 체험실'이 있다.



실외에는 중부지방 전통가옥 'ㅁ'자 초가집과 전통 그네와 디딜방아, 물레방아, 연자방아도 실제 크기로 전시돼 있다. 안산향토사박물관은 실내외에 관람과 체험거리가 풍부해 추운 겨울에 찾아도 온가족이 즐길 수 있는 안산 삶의 체험 박물관 역할을 하는 곳이다. 문화해설사의 재밌는 해설을 들으면서 박물관 관람과 체험까지 할 수 있다. 여기에 무료입장이라는 장점도 있어 한 번가고 두 번가고 계절마다 가보고 싶은 향토사박물관이다.

김선영 명예기자_rimmom@korea.com



향토사박물관

- ◇ 주 소: 안산시 상록구
석호로 144, 안산문화원
- ◇ 관람시간: 오전 10시~오후 5시
- ◇ 휴 관 일: 설날, 추석연휴
- ◇ 이용요금: 무료 (단체관람: 홈페이지 예약가능)
- ◇ 문 의: 향토사박물관(031-415-0041~2)



안산의 겨울 2배 즐기기

한옥과 어우러진 종이미술관

대부도에 가면 국내외 우수 종이 작가들의 작품과 수준 높은 종이공예의 예술을 만날 수 있는 종이미술관이 있다. 이곳은 국내 최초의 종이 조형 미술관으로 종이와 미술을 소재로 다양하게 표현한 작품들과 종이공예 공모전을 통해 배출된 작품 등 다양한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2층 제1전시관에는 국내 우수한 종이 작가들의 작품과 종이공예 공모전의 작품들이 전시돼 있다. 고비와 소반, 문갑 등은 많은 방문객으로부터 호응을 얻어 집에 진열해 놓고 싶은 작품 1순위로 꼽힌다.

종이미술관에는 종이 작품 외에도 화려한 그림도 전시



돼 방문객의 눈을 즐겁게 해주고 있다.

지하 1층에 있는 제2전시관 어린이 미술관에는 어린이 눈높이에 맞게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돼 있다. 우리나라 전통놀이를 소재로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작품을 감상할 수 있으며 커다란 한 공간을 활용해 바닷속을 재현해 놓았고, 슈렉과 어린 친구만한 크기의 로봇 건담도 종이로 만들어져 있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함께 방문한 어른들에게도 옛 추억을 선사할 만큼 볼거리가 풍성하다.

체험프로그램은 공예품 만들기로 다용도 꽃이, 팬더, 부채, 동물 수첩 등 다양하게 마련돼 있다. 직접 만든 한지에 판화 찍기도 할 수 있고, 단체 예약할 때 한복을 지참하면 한옥 내에서 사진을 찍으며 옛 모습을 재현할 수도 있다. 넓은 한옥 뜰에서 전통놀이 체험까지 즐길 수 있다. 계절별 프로그램으로는 도시 농부 체험이 마련돼 있다. 9월에는 포도 따기, 10월에는 고구마와 땅콩을 캐 가져갈 수 있어 방문객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또한 마음의 여유를 갖고 커피와 브런치를 즐길 수 있는 카페가 조성돼 있다.

예술적인 종이 공예로 꾸며진 종이미술관은 멋스러움에 더해 우아한 아름다움을 제공하며 친근감도 주고 있다. 아울러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히는 한옥과 강원도 소나무는 멋을 뽐내며 방문객을 맞고 있다. 한옥은 1천200℃에서 구운 향토기와를 활용해 전통기법인 나무를 끼워 맞추는 결과

법으로 지어져 우아한 멋을 자랑한다.

이곳은 전국 최고의 한옥 호텔로 꼽히며, 전통 한옥의 멋을 알리기 위한 교육적인 한옥 갤러리로 차원이 높은 진정한 한옥 숙박체험을 위해 야심차게 건립됐다. 한옥 2채의 이름은 자연과 하나같은 집이라 하여 '일연재'와 달이 밝은 집이라 하여 '교월당'이라 붙여졌다. 한옥 내부에 들어서면 은은한 소나무 향이 반긴다. 벽과 문살에는 한지의 아름다움과 전통 그대로의 바닥이 숙박객을 맞고 있다.

종이미술관은 일상에서 벗어나 종이의 아름다운 공예도 감상하면서 체험도 해보고 카페에서 차도 한잔하는 여유를 즐기기 위해 안성맞춤이다. 아울러 명품으로 지어진 한옥은 방문객에게 색다른 경험과 아름다운 추억을 제공하기 위해 많은 방문객을 기다리고 있다.

김영미 명예기자_flowerym@hanmail.net

종이미술관

- ◇주 소: 안산시 단원구 대남로 233
- ◇관람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 ◇휴관일: 매주 월요일
(월요일이 법정 공휴일일 경우 다음날 휴무)
- ◇이용요금: 일반 5천원 / 소인(3세~18세) 4천원
65세이상, 장애인, 단체할인
- ◇문의: 종이미술관(032-887-2055,0606)

골라보는 재미가 있는 단원미술관

매일 밖에서 뛰어 놀기에는 미세먼지와 독감이 걱정이고 키즈카페나 마트방문도 횡수에 한계가 있는 긴 겨울방학, 골라보는 재미가 있는 미술관에 가보는 것은 어떨까?

단원미술관은 김홍도의 예술혼이 살아 숨 쉬는 예술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단원미술제를 개최하고 김홍도와 강세황의 작품을 수집, 전시에 힘쓰는 안산시의 대표 미술관이다. 현재 1~2전시관은 '경기 시각예술성과 발표展 생생화화 : 흠어진 생각, 조합된 경험'을 유료전시중이다. 단원미술관 참여 작가 10인의 생각과 경험들로 채워진 다양한 형식의 미술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3월1일까지 전시되며, 일상을 새롭게 보고자 하는 성인과 독특한 상상과 창작 활동에 관심이 많은 중·고등학생들이 흥미롭게 영상을 보고 설치미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공간이다.

상상미술공장은 김홍도의 작품들로 재밌는 놀이를 하며 어린이들 스스로 작품을 만들며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홍도의 뜰에서 놀다'를 주제로 한 상상체험공간이다.

각자의 취미와 연령에 맞는 여러 전시실에서 자유롭게 관람 후 3전시관에서 다시 만난 일행들과 함께 문화해설사의 해설을 들으며 전시작품을 관람하는 코스로 미술관 나들이를 마무리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3전시관은 안



산시가 지난 10여 년간 수집한 단원 김홍도와 표암 강세황 등의 작품 영인본*을 시민에게 공개하는 전시인 '단원아회, 200년만의 외출'을 전시중이다.

단원미술관 관람 전후로 바로 옆 대형마트와 인근 노적봉폭포공원 방문이 가능하니 추운 겨울 움크린 몸과 마음을 따뜻하고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외출이 될 것이다.

*영인본(影印本): 원본을 사진이나 기타의 과학적 방법으로 복제한 인쇄물.

단원미술관

- ◇주 소: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422
- ◇관람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 ◇이용요금: 2천원(안산시민 50%할인, 미취학 장애인·65세 이상 무료)
- ◇휴관일: 매주 월요일, 1월1일, 설날과 추석당일
- ◇문의: 단원미술관(031-481-0505)



안산의 3대 인물 시리즈 단원 김홍도(1745~1806?)

정조가 사랑한 조선의 천재화가. 평민으로 태어났으나 유치가 빠질 무렵부터 안산 청문당에서 강세황의 지도를 받아 그림을 그렸다. 안산에서 유년기를 보내고 스승의 추천으로 도화서 화원이 되어 정조의 신임 속에 조선시대 최고의 화가로 인정받아 후에 연풍헌 감까지 지내게 된다. 산수, 인물, 도석, 불화, 화조, 풍속 등 모든 부문에 능하였지만, 특히 산수화와 풍속화에서 뛰어난 작품을 남겼다. 김홍도는 왕의 어진부터 촌부의 얼굴까지, 궁중행사의 기록화에서 서민의 일상을 그린 속화까지 신분과 계층을 아우르며 그림을 그렸다. 그의 작품은 동시대와 후대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조선시대 우리 문화와 역사를 살피는 귀중한 자료이다. 김홍도는 안산을 대표하는 위인이자 고단한 백성의 삶을 해학적인 이야기로 한국적인 정취가 가득한 풍속화에 녹여낸 인간애 넘치는 풍속 화가이다.

김선영 명예기자_rimmom@korea.com

부동산 TIP!



“복잡한 부동산 정보여 안녕~ 우리가 알려줄게”

바뀌는 부동산 정보 꼼꼼하게 챙겨요!

2020년 바뀌는 부동산제도

시행시기	내용
1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
	전세자금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 제한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개선
2월	주택청약시스템 이관 (한국감정원 - '청약홈')
	부동산 중개보수 기입과 확인 의무화
	실거래가 신고기간 단축 및 집값 담합 처벌
3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및 거래 소명 강화
	불법전매 시 청약제한 및 재당첨 제한 강화
1분기	주택연금 가입대상 개편
4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 종료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관리비 의무 공개
5월	2천만 원 이하 임대수익 소득세 신고
6월	신용카드 월세 납부 서비스 출시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8월	허위매물 게시 금지 및 처벌 시행
2020년 중	공모형 리츠 부동산펀드 세제 혜택 확대
	단독주택과 꼬마빌딩 상속세와 증여세 증가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
	공시가격 현실화 및 형평성 제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

지금까지는 9억이 넘는 고가주택 소유자들도 1가구 1주택이라면 거주 여부나 기간에 관계없이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해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아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2년 이상 거주'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1년에 2%씩, 15년 이상 보유해도 최대 30%까지만 양도세를 공제한다.

전세자금 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 제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뒤 9억 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금을 회수한다.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개선 올해부터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주택을 매입할 때, 취득세율이 1.01%~2.99%까지 세분화 된다. 주택이 6억 원 이하는 취득세가 1%, 6억~9억 원은 2%, 9억 원 초과는 3%인데, 이 가운데 6억~9억 부분을 세분화한 것이다. 또 집을 3채 이상 보유한 세대가 추가로 주택을 매입하면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주택청약시스템이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

그동안 민간 기관인 금융결제원에 위탁했던 주택 청약업무를 2월부터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한다. 아파트 청약 사이트도 '아파트투유'에서 '청약홈'으로 바뀐다. 기존에 청약신청자가 따로 확인해야 했던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등 개인정보를 바로 '청약홈'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국민은행 청약저축 가입자들도 '청약홈'에서 청약신청을 해야 한다.

부동산 중개보수 기입과 확인 의무화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중개료에 대한 분쟁이 차단될 전망이다.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계약서 작성단계에서 중개보수를 명확히 설명하고 협의해서 중개료를 기재해야 하고 거래 양쪽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실거래가 신고기간 단축 및 집값 담합 처벌

2월 21일부터 부동산실거래신고 기한이 30일로 단축된다. 계약이 무효나 취소가 되는 경우에도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실제 계약이 안 되었는데 허위신고를 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및 거래 소명 강화

투기과열지구 3억 원 이상 주택취득 시는 물론, 조정대상지역 3억 원 이상 주택과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을 취득할 때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안산 시는 비규제지역이므로 6억 원 이상 주택을 취득할 때 해당된다.

불법 전매 시 청약제한, 재당첨 제한 강화

공급질서 교란행위 및 불법 전매 적발 시 주택유형에 관계없이 10년 간 청약이 금지된다. 또한 현재 지역 및 주택 면적에 따라 1~5년까지 적용되는 재당첨 제한 기간도 늘어난다.

주택연금 가입대상 개편

주택연금 가입대상이 55세 이상으로 낮춰진다. 가입 가능한 주택의 기준도 시가 9억 원 이하에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로 변경된다. 공시가격은 시세의 약 70%안팎으로 형성되어 있으므로 가입기준이 완화된 것이다.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관리비 의무 공개

4월 24일부터 100가구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등 21개 항목을 공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300가구 이상이 공개해왔으나 범위가 넓어진 것이다.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 소득세 신고

지금까지는 주택 임대소득이 연 2천만 원 이하는 비과세 되었지만 올해부터는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도 소득세가 과세된다. 5월부터는 연 임대소득이 2천만 원이 넘으면 종합과세, 2천만 원 이하 소득자는 분리과세 혹은 종합과세 중에서 선택해서 신고해야 한다.

신용카드 월세 납부 서비스 출시

월 2백만 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로 월세를 납부할 수 있다.

허위매물 게시 금지 및 처벌 시행

모바일이나 인터넷 등에 허위매물을 게재한 공인중개사에게 최대 5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독주택과 꼬마빌딩 상속세와 증여세 증가

그동안 단독주택과 꼬마빌딩은 시세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시가의 60% 정도만 적용하여 상속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어 왔다. 올해 중으로 감정평가를 통해 과세표준을 시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한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 세율이 0.1%~0.8%로 상향 조정된다. 반면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 고령자의 세액 공제율을 80%로 높여서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을 낮추어 준다.

참고 : 국세청, 국토교통부 / 권소희 명예기자_estateksh@naver.com

신중년 일자리 시리즈



피부미용관리사 최성순 씨

“피부노화, 꾸준한 관리로 늦출 수 있어” 건강미 지켜주는 피부미용관리사 새롭게 일 시작한다면 발이나 귀 전문 관리사 추천

“노화를 막을 순 없어도 늦출 순 있어요. 꾸준히 관리하면 더디게 진행되지요.”

안산에서만 30년 넘게 피부 관리실을 운영해 온 최성순(사동·57)씨. 그는 20대 한창 나이에 얼굴에 심하게 돌아난 여드름을 치료하면서 자연스럽게 피부미용 일을 하게 됐다.

“그 당시 직장생활의 압박감이 여드름의 원인이었을 걸로 생각되는데, 어찌나 여드름이 심했던지 월급의 4분의 3을 치료비로 썼을 정도예요.”

여러 달 정성들여 관리를 받던 최성순 씨에게 단골 피부 관리실 원장은 직접 피부 관리법을 배워보는 게 어떠냐고 했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1988년 안산미용학원에 등록하고 피부미용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화장품 회사 피부 관리사원으로 경력을 쌓았고, 상록구 성포동에서 자신의 첫 가게를 열었다. 계속 공부하면서 후배들에게 노하우를 전달했고 현재는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 정문 앞에서 7년째 자신의 솜을 운영 중이다. 그의 노하우를 들어보자.

Q. 5060 신중년 일자리로써 피부미용관리사 관련 팁을 준다면.

5060 시니어들이 새롭게 배워서 피부미용관리사 일을 시작한다면 발이나 귀 전문 관

리실을 권하고 싶다. 피부 미용 중에서도 경락마사지를 배워 발이나 귀 관리를 하는 피부미용실을 운영해보는 것도 좋겠다. 발은 우리 몸을 지탱하는 받침대와 같아서 하루 종일 옥죄는 신발을 신고 활동하는 현대인들에게 발 관리는 필요하고 시장은 점점 커질 거다. 엄마 뱃속의 태아 모양을 한 귀 또한 부위 별로 우리 몸과 연결돼 있다. 그래서 피곤할 때, 귀를 자극하면 빠르게 몸이 이완되고 피로가 풀린다. 또, 주름 케어나 스킨케어는 우리의 정서 상 주니어들이 시니어의 서비스를 받는 게 불편할 수도 있다.

Q. 피부미용관리사 일은 몇 세까지 할 수 있는가?

본인이 하고 싶을 때까지 할 수 있다고 본다. 인생 백세 시대고, 우리 사회가 점점 고령 사회가 되는데, 젊고 건강하게 살고 싶은 노년층까지 피부 관리 수요층으로 흡수한다면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케어’처럼 시니어 피부미용관리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생각한다.

Q. 이 일에서 얻은 보람은?

30년 넘게 이 일을 하면서 계속 공부하게 됐다. 피부 트러블이나 노화가 단순히 피부만의 문제가 아니어서 신체 내부의 장기, 근육, 심지어는 심리상태까지 공부했고 고객들에게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 할 수 있었다.

백미란 명예기자_whity0218@naver.com

청년창업의 꿈

안산시 청년창업사관학교를 가다

청년의 ‘꿈’ 정해진 길을 걷기보다, 스스로 새로운 길이 되고자 하는 청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청년의 ‘땀’ 착박한 창업환경 속에서도 무한한 열정으로 성공창업을 향해 달려가는 청년들의 땀을 이해하고 함께합니다. 청년의 ‘땀’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꺼지지 않는 뜨거운 열정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 청년들의 미래를 함께 합니다.

실시간 스냅사진 촬영 서비스 앱 ‘폴릭(Polic)’

안산에서 개교한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우수기술을 보유한 청년창업자를 발굴, 사업계획 수립부터 사업화까지 창업의 모든 과정을 지원하며 혁신적인 ‘청년창업CEO’를 양성하고 있다. 이곳에서 실력을 갈고 닦으며 이제 졸업을 앞둔 한 청년 CEO를 소개한다.

탭(TAP)의 김명철 대표는 스냅 사진작가를 실시간으로 매칭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폴릭’을 개발해 지난해 10월 17일 시범 출시했다. 서울 하늘공원에서 베타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서버 안정화 정비 작업을 마무리하는 대로 정식 출시할 예정이다.

인스타그램, 핀터레스트 등과 같은 이미지 중심 SNS가 성장하면서 사진의 중요성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사진을 통해 장소의 분위기, 사람들의 감정 등 많은 것을 담을 수 있기 때문이다.

폴릭은 일반 사람들이 신혼여행 등 특별한 날을 더 생생한 사진으로 남길 수 있도

록 탄생했다.

폴릭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주변 사람, 연인 등에게 부탁해도 만족스럽지 않은 사진을 전문 사진가에게 맡길 수 있다.

두 번째, 전문가를 쉽게 연결할 수 있다. 기존에는 사진작가를 검색하고 가격을 비교하고 촬영 날짜를 조율해 전문가를 만날 수 있었다. 그러나 폴릭은 GPS를 기반으로 내가 찍고 싶은 장소 주변의 실력 있는 사진작가와 바로 만날 수 있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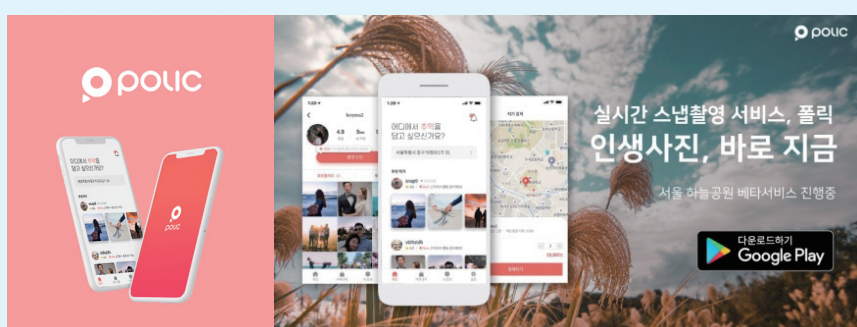
세 번째, 필요한 만큼 사진을 구매할 수 있다. 1시간, 2시간씩 긴 촬영과 비싼 가격의 부담을 덜었다. 정말 필요한 1~2장의 사진만 구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A컷뿐 아니라 원본 사진 중 자신의 마음에 드는 우스꽝스러운 사진도 구매해 추억으로 남길 수 있도록 했다.

김명철 탭(TAP) 대표는 “폴릭은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서도 더 생생한 추억을 남겨드리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라고 밝혔다. 폴릭은 시범 출시와 함께 구글 플레이스토어 다운로드를 시작으로 하늘공원에서 베타서비스를 시작해 역사와 핑크몰리로 유명한 하늘공원을 방문한 가족, 연인, 친구들에게 인생사진을 남겨줬다.



김명철 대표



문의 : 탭(TAP) 김명철 대표(010-9691-0514)
인치광 명예기자_chee0806@naver.com

아파트 관리비 명세서를 살살이 파헤치다



관리비 명세서에 숨어있는 진실 - 입주민 의식이 중요



한국인의 과반수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안산에도 수많은 아파트 단지가 있다. 아파트 입주민이라면 피할 수 없는 관리비 명세서를 분석해 현명한 지출을 하도록 알아보자.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듯 관리비도 아는 만큼 아낄 수 있다.

Q. 관리비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먼저 관리비는 크게 공용관리비와 개별 사용료로 나뉜다. 공용관리비는 관리사무소 직원의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와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 장기수선충당금, 화재보험료, 위탁관리수수료 등 단지관리를 위해 공동 부담하는 항목이다. 개별사용료는 전기, 난방, 수도 등 가구별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항목이다. 여기서 장기수선충당금에 주목하자. 장기수선충당금은 외벽 도색과 승강기 교체 등 시설 노후화에 대비해 중장기적으로 쌓아놓는 비용이다. 원래 집주인이 내는 것이 원칙이므로, 세입자는 임대기간 만료 후 그간 부과된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Q. 관리비가 많이 나오는 아파트는?

가구 수가 적거나 준공 연식이 오래된 아파트 관리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온다. 매월 지출되는 공용관리비

는 거의 일정한데 나눠 내야 할 가구 수가 적으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수선유지비 등이 많이 쓰이기 때문이다. 또 단지에 체육시설, 헬스장, 골프연습장 등 공동 커뮤니티 시설이 많을수록 관리비가 많이 나온다.

Q. 우리집 관리비를 다른 집과 비교해보고 싶어요.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http://www.k-apt.go.kr>)’은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성 제고 및 건전한 관리문화 정착 도모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단지정보, 관리비 정보, 유지관리 이력정보, 입찰정보, 회계감사보고서 등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 승강기가 있거나 중앙(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이 입주한 주상복합아파트가 관리비 공개대상이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관리 실태에 대해 알아보자.

Q. 관리비를 조금이라도 적게 내는 방법은?

개별사용료가 덜 부과되게 하는 방법이 최우선이며, 각 세대가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전기와 수도요금을 절약하는 고전적인 방법이 있다. 잘 알려



진 방법이지만 전자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빼놓기, 냉난방을 효과적으로 하기. 수도꼭지는 냉수 쪽으로 돌려놓기 등이다. TV가 없으면 수신료 납부를 해지하고, 이동통신사 IPTV를 보는데 유선방송료를 중복으로 내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이사온 경우, 예전 입주자가 공동 커뮤니티 시설의 사용료나 추가주차료 등을 해지했는지 살펴보고 억울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하자.

그 외 관리비 할인카드를 이용해 할인 받을 수 있다. 해당 카드사에 자신의 아파트가 자동이체 납부가 가능한지 알아보고 이체신청을 하면 된다. 카드사에서 매월 일정기간 관리비 할인 이벤트를 할 때도 있다.

참고 : 한국감정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권소희 명예기자_estateksh@naver.com



원곡동 다문화 거리에서 즐기는 세계 차(茶) 문화



원곡동 다문화거리에는 좁은 공간에도 불구하고 200여개의 음식점이 있으며 그 중 대부분의 음식점에서 커피와 차를 함께 팔고 있다. 원하는 나라의 차를 즐기려면 그 나라의 음식을 파는 식당을 찾으면 간단하다. 미국에 간 한국인이 LA 한인타운을 찾듯이 한국에 온 외국인인 안산 단원구 원곡동을 찾는다. 원곡동 일대가 다문화마을특구로 지정된 지 올해로 11년이 됐다. 현재 8만7천여 명, 100개국 이상에서 온 외국인이 안산에 거주하고 있

다. 원곡동에는 업소 1천380여 곳, 100여 가지 업종이 몰려 있으며 그 가운데 음식점이 가장 많다. 중국, 인도네시아, 네팔, 인도, 베트남, 태국,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세계 각국의 음식점이 다문화 음식 거리를 형성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주말이면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외국인이 고향의 맛을 즐기러 오거나 내국인 관광객도 몰리면서 수만 명이 몰리고 있다. 이 중에서 나라별 차(茶) 문화를 알아보자.

중국



철관음차가 대표적이며 중국 오롱차 중 하나로 향이 좋고 맛이 달다. 차를 마신 후에는 입안에 과일향이 난다. 여러 번 우려내도 맛과 향이 변함이 없으며 우리나라 녹차와 비슷하다.

다문화거리 초입 2층에 있는 커피스 토크(Coffee's Talker)에 가면 중국차와 한국식 커피를 즐길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



체리, 레몬, 설탕, 산딸기, 건포도 등의 과일을 말려서 우려낸 프르베리티(Fruitberry tea)라는 과일차와 블랙티(Black tea)가 유명하다. 프르베리티는 과일향과 단 맛이 진하게 느껴지고 블랙티는 잼, 레몬, 설탕 등을 이용해 만드는데 우리나라 홍차 맛과 비슷하다. 다문화거리 중간 정도에 위치한 우즈베키스탄 식당 임페리아(IMPERIA)에서 만날 수 있다.

인도·네팔



인도를 비롯한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네팔 등의 남아시아 지역에서 차 음료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마살라 차이’다. 보통 ‘차이’라고 하면 ‘마살라 차이’를 일컫는 말이다. 홍차에 우유, 설탕, 향신료 등을 넣어 만든 인도식 ‘밀크티’다. 인도와 네팔 사람들은 하루를 ‘차이’로 시작해서 ‘차이’로 마칠 정도로 인도와 네팔의 대중적인 음료다. 그래서 인도와 네팔 사람들은 고향의 맛을 느끼고 싶을 때 다문화거리의 ‘인디안 네팔 푸드(INDIAN NEPAL FOOD)’를 찾아 고향의 향수를 달랜다.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차는 ‘카팔아피 루왁커피’가 대표적이다. 카팔아피는 인도네시아 대통령궁에서 대통령과 귀빈에게 대접하는 커피로 유명하며 우리나라의 송농맛과 비슷하다. 현재는 인도네시아의 국민 커피로 각광받고 있다. 인도네시아 홍차로 불리는 ‘떼 아슬리’와 자스민티도 유명세를 타고 있다. 다문화거리 초입에 있는 인도네시아 음식점 와룽키타(WARUNG KITA)에 가면 차 맛을 볼 수 있다

김효경 명예기자_poet-hk@hanmail.net

시민기자가 간다!

마을을 대표하는 생생마을기자단, 초·중·고·대학생으로 이뤄진 학생기자단, 특색있는 글솜씨를 가진 SNS시민기자단이 전하는 안산시의 생생한 소식. 안산시 시민기자단은 시민들과 공감할 수 있는 글을 써내려갑니다. 기사 제목 좌측 QR코드를 스캔하면 스마트폰으로 기사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원과 마을 정원도시 안산을 꿈꾸다!

1월14일, '안산시 정원 조성 및 정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안 토론회가 안산마을 정원 네트워크 (가칭) 주최로 열렸습니다. 마을정원은 주민들의 만남, 심, 창의적 활동, 교육, 문화, 예술 활동 공간이 될 것입니다. 상록구 사이동에 들어설 '경기도 세계 가든'이 '정원도시 안산'의 비전을 가지고 세대를 아우르며 민관 협치의 성공적인 사례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원도시 안산 파이팅!

• 권성혜 생생마을기자



청소년 꿈 지원 사업 꿈쟁이의 여정

4.16 재단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미래 세대인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생명·안전·인권 존중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꿈 기금과 다양한 교육, 연수를 지원합니다. 3개월간의 긴 여정이 끝나고 진행된 꿈쟁이들의 결과발표회를 통해 열심히 노력한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0년에도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다고 하니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은 꿈을 위한 나래를 펼치길 바랍니다.

• 김혜주 학생기자



도심 속에 농장이 있다구요? 안산 도시농업농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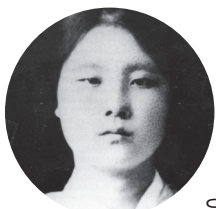
안산 도시농업농장은 안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곳으로 단원농장, 초지농장, 유원지농장, 신길농장이 있는데요~ 모두 도심 속에 위치해 있습니다. 거주지와 너무 멀지 않아 좋고 가족들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추억도 쌓고~ 다양한 농작물을 키우며 보람도 느끼고! 소소한 행복을 경험해보고 싶다면 2월 중 모집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24면 알림마당 참고)

• 조현진 학생기자



최용신 선생 서거 85주기 추모기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 그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자”



안산의 근대사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이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최용신 선생님이 누군지 아 니?”라고 물어보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최용신 선생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더군요. 부끄럽지만 저도 안산에 살아오면서 현충시설인 최용신 기념관이 있다는 것만 알고 있었지 어떤 분을 위한 시설인지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가난과 무지라는 어두운 현실 속에서 일본어가 국어라고 알던 아이들에게 우리말을 알려주며 이들의 애국심과 자립심을 키워주고 청년과 부녀자들의 문맹 퇴치, 농촌마을의 생활개선 등 사랑과 헌신으로 농촌계몽운동을 실천한 여성독립운동가 최용신 선생.

서거 85주기를 맞아 시민들과 함께 최용신 선생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프로그램이 최용신기념관에서 1월17일

부터 23일까지 운영됐습니다.

이번 포스터를 작성하면서 우리에게 친숙한 심훈의 소설 '상록수'의 여주인공(채영신)이 실존 인물이었던 최용신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으며 그분을 기념하는 시설이 집 근처에 있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고 많은 역사적 사실과 최용신 선생님의 삶에 대해서 늦게라도 알게 되어서 저에게도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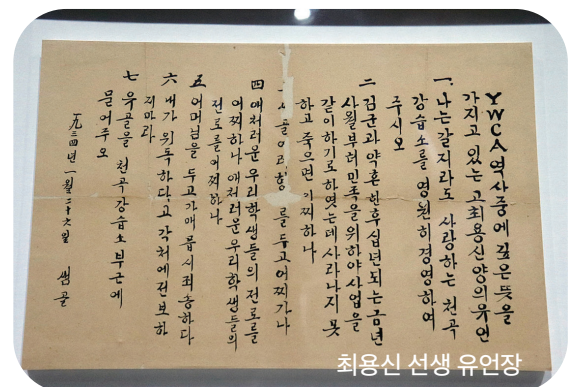


최용신 기념관

'상록수'라는 소설과 영화, 뮤지컬, 노래 등 다방면에서 최용신 선생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분이길래 세월이 지나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걸까요?

최용신 선생의 업적과 그녀의 숭고한 사랑이야기도 블로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김용호 SNS시민기자



최용신 선생 유언장



늘 푸르른(常祿) 상록구에는 일동, 이동, 사동, 사이동, 해양동, 본오1·2·3동, 부곡동, 월피동, 성포동, 반월동, 안산동 등 총 13개 동이 있다. 파릇파릇 우리동네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안산동

새마을협의회, 수암봉 해돋이 등산객에 한방차(茶) 무료봉사

안산동새마을협의회(회장 이부규, 강경자)는 지난 1월1일 수암봉 공영주차장 앞에서 경자년 새해 해돋이를 보기 위해 수암봉을 찾은 등산객들에게 따뜻한 한방차를 무료로 제공하는 봉사를 실시했다.

이날 차(茶) 무료봉사 행사를 위해 20여명의 새마을협의회 회원들이 행사 전날부터 새마을부녀회 음식 창고에서 미리 한방차를 달여서 준비했으며, 수암봉을 찾은 시민들에게 따뜻한 한방차와 커피, 녹차 등을 제공했다.

안산동새마을협의회는 지난 수년간 수암봉 해돋이를 찾는 등산객들에게 한방차(茶) 무료봉사를 실시해 왔으며, 지난해 새마을지도자대회에서는 장려상에 입상하는 등 새마을 정신(근면, 자조, 협동)으로 지역 주민에게 참된 봉사를 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왔다.

이부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과 강경자 새마을부녀회장은 “쌀쌀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수암봉 해돋이를 찾아주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추위를 녹여드릴 수 있어 매우 뿌듯하고, 앞으로도 차(茶) 무료봉사를 비롯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도원중 안산동장은 “경자년 새해에 수암봉을 찾은 시민들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 새마을 회원님들이 있어 참 든든하다”며 노고를 치하했다.

문의 : 안산동행정복지센터(031-481-5511)



안산동



본오동

본오동

롯데리아 본오점, 본오3동 저소득 청소년에 장학금 기탁

상록구 본오3동 소재 롯데리아 본오점(대표 이남숙)은 지난 1월15일 관내 저소득 청소년을 위해 장학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이남숙 롯데리아 본오점 대표는 도움이 필요한 아동·청소년들과 결연을 하여 매년 장학금을 후원하는 방식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해 왔으며, 올해 역시 관내 저소득 청소년과의 결연을 통해 그들이 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 예정이다.

이남숙 대표는 “아이들이 현재의 가난과 불우한 환경으로 인해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훌륭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을 하고 싶다”며 “남 몰래하는 선행과 기부도 좋지만 기부사실을 알리고 공개함으로써 기부 문화 확산의 작은 불씨가 될 수 있다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규상 본오3동장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는 분들이 있어 너무 감사하다”며 “소외되는 이웃 없이 모든 지역주민이 행복한 본오3동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탁된 장학금은 관내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저소득 청소년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문의 : 본오3동행정복지센터(031-481-5407)



성포동



이동

성포동

해법영어 성포교실 학원생 일동, 이웃 사랑 후원품 기탁

안산 해법영어 성포교실(원장 오은복)은 지난 1월14일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쌀(10kg) 1포, 라면 2박스, 화장지, 양말, 문구류 등을 성포동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성포동에 위치한 안산 해법영어 성포교실 학원생 일동은 설을 맞아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자 후원했다.

오은복 원장은 “학생들이 모은 작은 정성과 마음이 지역 소외계층에 잘 전달되어 소외되는 이웃 없이 모두가 즐거운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국 성포동장은 “학원생들의 정성과 따뜻한 마음에 고마움을 전하며, 기탁 물품을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잘 전달하여 뜻깊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앞으로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성포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탁 받은 후원품은 관내 저소득 가정과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전달 예정이다.

문의 : 성포동행정복지센터(031-481-5470)

이동

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저소득층 가구에 명절음식 직접 배달

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박성중)는 설 명절을 앞둔 지난 1월16일 이동형 정복지센터에서 설맞이 명절음식 나눔사업을 추진했다.

설 명절을 맞아 저소득 가구 50세대에 4종의 명절음식을 예쁘게 담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조를 나눠 각 가정으로 직접 배달하고 명절 덕담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번 명절음식 나눔사업은 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2019년 한 해 동안 마련한 CMS 후원금 979만원 중 150만원을 배분 신청해 마련했다.

박성중 민간위원장은 “이동 지역 내 독거노인세대,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에 협의체 위원들이 정성껏 준비한 건강한 음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어 기쁘고,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이동행정복지센터(031-481-5657)



단원구

조선시대 대표 화가 단원 김홍도를 기리는 단원구에는 와동, 고잔동, 중앙동, 호수동, 원곡동, 백운동, 신길동, 초지동, 선부1·2·3동, 대부동 등 총 12개 동이 있다. 따뜻한 이웃 우리동네의 소식이 궁금하다.

고잔동

고잔동 문화마을신문 주민·행정이 함께 이뤄낸 100호 발행 "고잔동 번영과 발전 위한 신문 계속 만들겠다"

2019년 12월, 고잔동 문화마을신문 100호가 발행됐다. 2011년 6월 창간호를 시작으로 9년간 매달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발행된 문화마을신문은 주민들이 알고 싶은 고잔동의 정보를 공유하고 주민들의 이야기를 담아 주민들의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한때 안산시 여러 동에서 다양한 마을신문이 만들어졌으나 여러 난관에 부딪히면서 어느새 발행이 멈춘 동들이 있지만 문화마을신문은 고잔동 주민과 단체장 등이 모여 지속적인 신문발행을 위해 문화마을후원회를 발족, 이후 십시일반 주민들의 꾸준한 소액 후원금으로 오늘날 100호 신문발행까지 이뤄졌다. 후원금은 신문발행 이외에 다른 곳에 쓰이지 않는다. 문화마을신문 제작은 신문 기획에서 배부까지 온전히 주민들의 손으로 만들어진다. 일체의 보수도 없이 주민들의 순수한 봉사 정신으로 이뤄진다.

1차 편집회의에는 편집위원들과 주민자치위원회 간사, 행정복지센터의 담당 공무원이 모여 논의한다. 이때 고잔동의 알림소식이나 행사 등을 선정하고 동소식을 정해 각 편집위원들이 기사 아이템을 취재하고 사진도 직접 찍은 후 기사를 작성한다. 2차 편집회의에는 작성된 기사를 검토하고 오·탈자 여부 확인을 거쳐 승인이 되면 인쇄에 돌입한다. 매달 25일 8천부의 신문이 행정복지센터로 배달된 뒤 각 통의 통장들이 직접 가가호호 배달한다. 타동들



이 직접 배달이 여의치 않아 몇몇 거점공간에 비치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집어가도록 하는 것에 비해 고잔동이 문화마을신문에 얼마나 큰 의미를 두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또한 행정기관도 신문발행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매달 편집회의에 담당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고 신문이 발행되면 배부를 위해 통별 가구수에 맞춰 나누는 작업을 한다. 문화마을신문이 어느 한 단체나 몇몇 주민의 힘이 아닌 고잔동 행정과 주민, 모두의 노력의 산물임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듯 주민들의 힘으로 만들어지지만 문화마을신문이 갖는 한계도 있다. 기사 소재의 다양성과 필요한 정보를 담아내고 있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신문의 디자인이 천편일률적이라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

는 문화마을신문 편집부도 인정하고 있는 문제다. 하지만 자원봉사로 참여하는 몇몇 편집위원들의 노력만으로는 풀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물론 편집위원의 부족과 빠듯한 발행비용으로는 당장 해결이 어려운 문제이나 문화마을신문이 지속적으로 발행되고 고잔동 주민들에게 사랑받기 위해서는 간과하지 않고 풀어야 할 숙제이기도 하다.

김상곤 고잔동 문화마을후원회 회장은 "그동안 시련과 어려움도 많았고 폐간의 위기도 있었지만 주민 여러분의 후원과 격려가 있어 지속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 고잔동 번영과 발전을 위해 상식과 소식을 듬뿍 담은 신문, 오기를 기다리는 신문을 만들겠다"며 고잔동 문화마을신문 100호 발행의 소감을 밝혔다.

박미영 명예기자_uzuin70@naver.com

원곡동

원곡동 다문화노점 깨끗한 거리 만들기 앞장... 매주 토요일 오전 거리 청소

썩썩썩 비질하는 소리가 원곡동 다문화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다. 노점을 하는 다문화노점상과 시민들이 함께 거리를 청소하는 모습이 2020년을 밝게 열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원곡동 다문화거리에서 노점을 하고 있는 시민과 귀화동포 및 다문화상인들이다. 이들은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다문화거리를 쓸고 닦는다.

몇 년째 하고 있는 거리청소 운동이지만 이들에게도 처음에는 아픔이 있었다. 아무리 다문화거리를 청소하자고 해도 주위 상인들은 따라주지 않고 청소하고 나면 곧바로 또 지저분해지기가 일쑤였다. 하지만 나중일 다문화노점 지부장을 비롯한 회원들은 주위의 따가운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매주 청소를 이어갔다.

그래서 주변상인들도 감동했을까? 이제는 다문화노점 회원들이 거리청소를 나서는 주위의 다문화상인들도 함께 거리청소에 동참하고 있다. 또 손님이 쓰레기를 버리길 라도 하면 쪼는 모습을 보이면서 항상 자기 앞 가게는 내가 깨끗이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다문화거리에서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중국귀화동포 장모씨는 "노점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하는데 우리도 동참하고 싶어 상가 앞 청소를 하고 있다"면서 "언제부턴가는 내 가게 앞이 깨끗해져 나부터도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다문화노점 상인들은 청소는 물론 해마다 김장 나눔 행사와 십시일반 성금을 모금해 불우이웃을 돕는 등 남모르게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도왔다. 나중일 지부장은 "처음



에 청소하자고 하니까 구경만 하던 상인들이 이제는 회원이 되어 먼저 솔선수범하고 달라진 다문화거리를 보면서 많이 행복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월 4일 토요일 오전, 안산역 광장에 35명이 모여 거리청소를 시작한 후 다문화거리와 인근 상가지역을 돌고 다문화광장에서 마무리 할 때 쓰레기는 이미 50L 용량의 쓰레기봉투가 5포대를 넘기고 있었다.

김효경 명예기자_poet-hk@hanmail.net

‘안산스마트허브 문화재생사업’ 공공미술프로젝트

근로자들과 함께 만들어낸 공공미술 작품 탄생

‘2019 안산스마트허브 문화재생사업’ 일환으로 기획된 공공미술프로젝트 ‘Art in Factory’ 작품 3점이 완성돼 지난해 12월17일부터 시민에게 공개됐다.

안산스마트허브 문화재생 사업프로젝트는 3개의 기업과 3명의 작가가 매칭돼 지난해 6월부터 워크숍과 아이디어 공유 회의를 통해 근로자들과 함께 공공미술 작품을 탄생시켰다. 특히 기업을 대표하는 이미지와 브랜드, 생산재료 등을 활용하고 기업의 홍보와도 결합시켰다는 특징이 있다.

(주)PN풍년과 작업한 정기현 작가는 기업의 독특한 분위기에 영감을 얻어 (주)PN풍년만의 기념비적인 가든 정원을 제작했다. ‘풍년가든’으로 이름 붙여진 이 작품은 공장 근로자들이 식물을 가꾸고 관리를 하면서 재탄생시키는 과정을 통해 작품으로 탄생했다.

정기현 작가는 “작품성도 중요하지만 그 시대가 안고 있는, 혹은 그 장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혹은 특수한 주제를 가장 잘 드러냈을 때 좋은 공공미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자연과 인간을 이어주는 중요한 매개가 되는 그릇은 용도에 따라 크기와 재료가 다양해 그 자체로도 충분히 예술적이다. 풍년에서 생산되는 여러 종류의 그릇들을 활용해 식물을 가꿔가면서 완성된 작업으로 기술, 인간, 자연을 연결하는 그릇의 의미를 되새겨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진로발효는 박준식 작가가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회사를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

작품 ‘발효 에너지’를 제작했다. 박준식 작가는 회사에 와서 제일 기초적인 것부터 조사했다. 기업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대상 중 이미지화 될 수 있는 것들을 찾았는데, 결국은 그 무취무색의 어떠한 결정체라는 생각에서 출발해 물방울 형상이 나오게 됐다. ‘발효 에너지’는 에탄올의 결정체를 모티브로 조각을 제작하고, 방울 표면에는 직원 리서치를 통해 취합된 진로발효의 창업 스토리에 관련된 단어 등을 부착했다.

주방가구 인조대리석 상판전문회사인 (주)한샘이펙스에서는 문재선 작가가 기업에서 생산되는 인조대리석 재료를 활용해 직원과 함께 ‘모아모아MOAMOA’라는 작품을 탄생시켰다. ‘떨어지는 햇빛, 햇빛을 모아 어두운 공장 거리를 밝히는 빛을 모은다’는 의미와 직원들의 흔적을 채집하듯이 모은다는 의미를 담게 되면서 ‘모아모아’라고 짓게 됐다.

한편,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2014~2019년 이뤄진 공공미술 작품과 참여기업 및 공공기관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길 따라 가는 예술길 스마트허브’ 맵북도 제작됐다.

안산스마트허브 문화재생사업은 문화예술의 사각지대에 놓인 산업단지에 예술 조형물을 설치해 무미건조한 공단의 근로환경과 분위기를 개선하고, 근로자들의 정서함양과 문화예술 향유를 제공하기 위해 2014년부터 안산시와 안산문화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이다.

문의 : 안산문화재단(031-481-0525) / 이선희 명예기자_iamyou70@hanmail.net



정기현작-풍년가든



박준식작-발효에너지



문재선작-모아모아

안산도시공사, 운영 효율화로 주차장 확충

주요시설·변화가 인근 주차장 8곳, 기존 982면에서 1천99면으로 확대

안산도시공사는 현재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의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등 운영 효율화를 통해 117면을 추가 확보해 시민들의 주차편의를 높였다.

이에 따라 982면 규모로 운영되던 공영유료주차장 8곳은 10% 이상 증가한 1천99면으로 확충됐다. 주차장 1곳 당 평균 15면 늘어난 셈이다.

주차공간이 늘어난 주차장은 ▲안산세무서 뒤 ▲상하수도 사업소 앞 ▲여성회관 뒤 ▲안산상공회의소 뒤 ▲신원프라자 뒤 ▲우성여성병원 앞 ▲신천길 앞 ▲외국인주민센터 앞 주차장 등 8곳이다.

해당 주차장들은 시청, 안산단원경찰서,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안산중앙역 로데오거리 등 많은 시민들이 모이는 주요시설과 변화가에 인접해 주차 수요가 매우 높다.

지난해부터 117면이 추가 운영됨에 따라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시민들의 주차 불편이 상당 부분 감소되고 있다.

안산도시공사는 그동안 노후 시설 및 운영 시스템 개선을 통한 이용고객 편의 개선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환경 정비 공사, 주차장 이용시간 확대 조정, 방치 차량 정리, 주차장 부지 내 유휴공간 조사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적극 추진했다.

특히 주차장 부지 내 유휴공간 조사를 통해 117면 주차면수를 추가 확보한 것이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다. 공사는 주차장 종이도면을 전면 전산화해 주차장 입구와 출구, 가장자리

등 숨은 공간을 주차공간으로 재설계했다. 축적이 누락된 기존 종이도면은 정확한 면적을 파악하기 어려워 주차장 유휴공간의 효율적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안산도시공사 관계자는 “안산도시공사는 관내 60개 공영유료주차장 운영을 통해 시민들에게 선진 주차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주차면수 추가 확보 등 적극적인 주차장 운영 효율화 노력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이용 고객 편의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안산도시공사(031-481-4973)



안산시의회, 2020년 소통·공감 의정 ‘획 긋는다’

새해 맞아 기존 사업 ‘업그레이드’...연간 회기 조정해 안건 심의 효율성 제고



안산시의회가 기본에 충실한 의회, 실력으로 인정받는 의회 구현을 위한 새해 운영 방안을 밝혔다. 지난해 연말에 발표한 신년사에서 공동체 의식 강화와 균형 잡힌 집행부 견제 등을 의정 지표로 천명하기도 했던 의회는 지난 1월7일에도 제258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최를 통해 연간 의사일정을 확정하면서 의회 운영의 청사진을 내놨다.

무엇보다 의회는 올 한해 ‘시민 소통’과 ‘공감’을 의정활동의 씨줄과 날줄로 삼아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의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시민 참여 사업들을 여럿 추진하는 한편 정례회 회기를 조정해 안건 심사의 내실을 기한다.

선진의회 구현 위한 의원 역량 강화 ‘집중’

의회는 올해도 행정 수요자인 시민 제일주의의 실천을 위해 구성원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다. 공복(公僕)인 의원들의 역량 강화가 곧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자세로 교육에 나설 예정이다.

먼저 오는 5월과 11월에는 두 차례에 걸쳐 정례회 대비 합동연수를 실시한다. 6월 11월에 각각 개최되는 1,2차 정례회를 맞아 의원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둔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전문 교육 기관을 활용해 조례 입안 및 심의와 행정사무감사·예산안 분석에 관한 강의를 진행, 의원들이 8대 의회 3년차에 걸맞은 역량을 갖추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커리큘럼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또 새해에는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명사초청 아카데미’를 도입해 자기계발 등 다양한 부문에서 소양을 키우는 기회도 마련한다.

각계 유명인사나 전문 강사를 초빙해 SNS 활용 전략과 소통 리더십, 비즈니스 매너 등을 교육함으로써 의회 구성원들의 역량 강화를 도모한다.

안팎으로 소통 실천하는 안산시의회, 시민 곁으로 한걸음 더

21명의 시의원 전원이 참석해 의회 주요 현안과 시정 이슈를 논의하는 의원전체 회의도 상시화 한다. 의회는 매월 두 번째 수요일에 의원총회 정례회의를 개최하며, 상황에 따라 총회를 개최해 다양한 이슈에 대해 의회 구

성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대안을 모색한다. 아울러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회의체인 의장단 회의를 수시로 가동해 긴급 현안에 대한 의사결정의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의회 문턱을 낮추는 사업들도 다양하게 전개한다. 2017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안산시 청소년의회’는 올해도 변함없이 청소년들의 참신한 시선으로 안산의 비전을 제시하는 활약상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각 중학교로부터 참여 학생을 모집해 오는 3월 구성을 마치면 올해 말까지 국회 견학과 지역사회 탐방, 본회의, 상임위원회 등의 과정을 거쳐 청소년들의 눈높이로 바라본 여러 정책안들을 내놓는다. 청소년의원들은 이 10개월간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학습하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계기도 갖게 된다.

의회는 또 시민들이 참여하는 단체 견학 프로그램도 운영 중에 있으며, 중·고등학생의 경우 ‘의회 교실’ 프로그램을 통해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별 안건 처리 과정을 체험할 수 있다. 회기 중에도 누구나 단체 방청 및 개인 방청이 가능하다.

지역의 문화예술 단체들이 참여하는 ‘소통콘서트’도 계속 운영된다. 정례회와 임시회 개최 전 본회의장에서의 공연 기회가 주어지는 소통콘서트 무대는 의회 인터넷 방송으로도 공연 모습이 송출돼 단체 홍보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방청객과 시청자들이 문화 향연을 즐기는 시간이 되고 있다.

회기 조정해 안건 심의 만전 기존 사업들도 ‘업그레이드’

의회는 기본에 충실하겠다는 의정 목표에 따라 안건 심의의 밀도를 높이기 위해 연간 회기 일수도 조정했다. 의회는 7월 제2상임위실에서 열린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20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확정하고 제1차 정례회를 오는 6월 1일부터 6월 26일까지 26일간, 제2차 정례회는 11월 26일부터 12월 18일까지 23일간 개최하기로 했다. 임시회는 6차례, 총 43일 동안 개회된다. 지난해(6회) 보다 회기가 2회 더 많은데다가 회기 중 안건 자료조사 등을 위한 준비일도 반영되면서 의원들이 안건 심사에 한층 더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는 평가다.

의회는 또한 의원연구단체 활성화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지난 2019년은 의회 역사상 가장 많은 5곳의 의

원연구단체가 활동한 해로 기록됐다. 이들 의원단체는 조례안 발의와 시 정책 반영 등의 성과를 거두며 양과 질적인 측면 모두에서 뛰어난 한해를 보냈다.

의회는 올해도 의원들이 활발하게 연구활동을 벌이도록 관련 예산 및 인력 지원에서도 작년에 버금가는 수준을 유지하고 그 간 쌓아온 연구 성과를 아카이브화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지난해 6월 제255회 임시회부터 상임위원회를 생방송으로 송출하기 시작한 의회는 올 한해 이를 더 안정화해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화면 자동 전환 및 포커싱, HD급 화면 송출 등 시청자 친화적인 기능을 갖춘 의회 생방송 중계 시스템은 그동안 한건의 방송 사고도 없이 성공적으로 운영돼 왔다. 의회는 올해도 전담 인력의 업무 능력 향상과 상시 유지 보수 체계 확립을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시청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역 발전의 축으로

다함께 성장하고 누리는 안산 만드는 데 최선

의회는 이외에도 지난해에 이어 전국 지방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선진 의정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 필요시 벤치마킹을 실시하는 등의 실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의회사무국 홍보팀이 매일 전국 지방 의회 동향을 파악, 의회 구성원들과 공유하면서 필요한 사항을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구조를 확립해 왔다.

안산시의회는 올 한해 이러한 사업들을 적극 시행하는 가운데 안정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안산 발전을 추동하는 한 축으로서의 본분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김동규 의장은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 운영과 의정활동으로 인정받는 의회를 실현하고 있다”고 밝히고 “경자년 한해는 함께 혁신하고 함께 성장하며 함께 누리는 안산을 만드는 데에 의회의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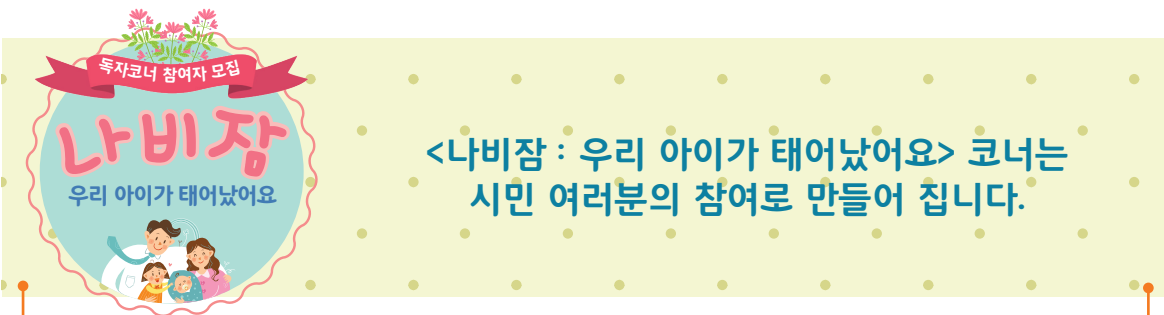
소통콘서트



안산시 청소년의회



제2차 정례회 대비 합동 워크숍



<나비잠 : 우리 아이가 태어났어요> 코너는
시민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 집니다.

나의 기쁨 나의 사랑

아이이름: 오윤우(남) 출생년월: 2018년 10월 태명: 기쁨이

사랑스런 우리 아가, 뱃속에서부터 꾸물꾸물 힘차게 움직이더니 태어나서도 쉬지않고 꿈지락 쿵쿵 쿵 거려요.

가끔씩 온 힘을 다해 울어대기도 하지만 보통은 눈만 마주쳐도 방긋방긋 웃어주어 엄마 아빠는 물론 보는 이의 마음을 사르르 녹여준답니다. 한번은 고 작은 입으로 “대~ 따~” 이렇게 말하는데 심쿵했어요. 엄마가 많이 쓰는 ‘됐다’라는 말을 어느새 따라하네요.

하루하루 커가는 모습이 예쁘면서도 한편으로 아쉬워요. 이 예쁜 모습 더 오래 보고싶는데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요. 그래서 매 순간 더 열심히 눈과 마음에 담아두려 해요.

‘아이가 한 살이면 부모도 한 살이다’라는 말이 있죠. 엄마 아빠가 많이 부족하고 서툴지만 매순간 사랑으로 기르니 아이가 어느새 첫돌이 지났네요. 최고의 부모는 되지 못할지라도 최선을 다해 사랑해

주는 부모가 되고 싶어요. 안산에 계시는 모든 부모님들도 힘내시고, 우리 아이들 힘껏 사랑합시다!♥

· 송송이(상록구 월피동)



풍경

38층 47층

거대한 아파트 사이로
밀려오는 바람

송곳 되어 가슴을 찌른다
눈보라가 몰아칠 것 같은
컴컴한 하늘

30년이 지나
고향을 찾은 이는
광장 한복판에서
길 잃은 아이 되어
떨고 있다

도시가 하얗게 덮였다

마을이 변하였다
마음은 그대로인데

· 남태현(상록구 이동)

책 읽는 안산 / 2월 추천도서

이달의 주제 『ADIEU 2019, WELCOME 2020!』

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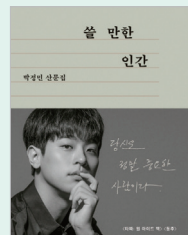
생각하는 아이

저자 요나스 타울 / 출판사 봄의정원

거대한 우주 속 모든 작은 것들이 지닌 소중한 가치. 지구는 혹시 거대한 우주 속의 아주 작은 구슬이 아닐까요? 나는 그 구슬 위에 사는 수많은 아이들 중 하나일 뿐이 라면요?

어느 날 자신이 너무 작고 보잘것없다고 느낀 한 소년의 생각 여행 속으로 함께 떠나요!

청소년



쓸 만한 인간

저자 박정민 / 출판사 상상출판

배우 박정민의 이야기. 배우라는 직업군에서 겪는 이야기부터 낯선 땅에 다다른 여행자로, 누군가의 친구로, 철없는 아들로, 그리고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서의 이야기들을 저자 특유의 유머러스한 문체를 유지하면서도 충실히, 성실히, 절실히, 길게 노력해온 당신을 위로하는 진솔한 문장들로 전한다.

성인



지혜롭게 나이 든다는 것

저자 마사 누스바움 / 출판사 오픈하우스

우정, 나이 들어가는 몸, 적절한 은퇴 시기, 나의 과거 등을 함께 생각하고, 은퇴하기 적합한 시점은 언제인지, 유산을 어떻게 적절하게 나눠줄 수 있을지 등 보다 실용적인 삶의 지침을 전한다. 또 노년의 경제적 불평등과 노인빈곤, 노인혐오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우리가 떠난 후에도 계속될 세상에 우리는 무엇으로 기여할 것인지를 물으며 나를 돌보는 것을 넘어 타인과 세상을 함께 돌보게 한다.

독자
투고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아

언젠가부터 '소확행'이라는 말이 유행어가 됐다.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작지만 확실하게 실현 가능한 행복'이라는 의미의 소확행은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나에게도 찾아왔다. 10년 가까이 직장 생활을 하며 언젠가부터 마땅한 취미도, 즐길 거리도 없어지면서 인생이 '회사-집-회사-집' 생활의 반복이 됐다. 재밌거리가 없어지면서 가끔 친구들을 만나 수다를 떨어도 잠간은 즐거워도 집에 갈 때쯤에는 우울증 같은 공허함이 몰려오곤 했다. 새로운 취미를 찾아 새로운 운동을 배워보기도, 새로운 분야를 찾아 공부를 해보기도 했지만 잠깐 빠졌다가도 금세 싫증을 느끼곤 했다.

호기심이었을까. 작년 9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집 근처 도서관을 찾아가 봤다. 워낙 주변에 대해 무관심했던 건지 아니면 안내판만 봐서 그랬던 건지, 집 바로 앞에 이러한 곳이 있는지 실상 처음 알았다. 안산에 정착한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던 이유도 있었지만, 독서량이 많은 편도 아니고 책을 새로 사서 읽는 습관 때문에 도서관을 단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것이다.

대학 시절 이후 오랜만에 도서관과 열람실을 이용해봤다. 끄해야 전자사전 정도 퍼놓고 책만 읽고 인쇄물로만 공부하던 시절보다 노트북에 태블릿, 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가 눈에 띄었다.

원하는 책 한 권 골라 자리에 앉아 책을 읽었다. 그동안 집이나 카페에서 읽던 느낌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너도나도 집중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주변 분위기에 어울리며 나도 책에 집중하게 됐다. 평소였다면 몇 장 읽고 딴 짓을

하거나 중간에 책을 내려놓고 TV를 봤을 텐데 이날은 한 시간은 집중해서 책을 읽었다. 읽은 내용도 귀에 쏙쏙 박혔다.

잠깐 책을 놓고 나와 도서관 이곳저곳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다 큰 성인이 초등학교 아이처럼 호기심에 가득 찬 눈빛을 띄며 구석구석 살펴봤다. 도서관 벽에 걸려있는 행사 안내 포스터가 눈에 띄었다. '2019 제9회 안산시 도서관 책문화축제'를 알리는 포스터였다. 행사가 일주일 정도 남은 시점에서 궁금했다. '책을 주제로 하는 축제는 무엇일까?' 꼭 가봐야겠다고 마음먹고 행사 첫날 중앙도서관을 처음으로 가봤다. 당시 아프리카돼지열병 사태로 행사가 축소돼 100%로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책을 주제로 한 새로운 문화를 경험했다. 책의 한 장면을 주제로 한 전시프로그램이 특히 기억에 남았다.

이후에도 도서관은 내 삶의 일부가 됐다. 처음에는 단순히 도서관 분위기를 즐기며 책을 읽었지만, 도서관에서 진행되는 인문학 강좌도 기회가 될 때마다 찾게 됐다. 책이라는 존재가 예전에는 '읽고 끝'이었다면, 이제는 독서토론, 서평 등 새로운 분야도 알게 됐다. 잘 쓴 서평 한 작품을 인터넷에서 보고 따라 써보기도 했다. 아직 100% 독서에 빠진 삶은 아니겠지만, 쉽게 흥미를 잃고 마땅한 취미도 없던 나에게 있어 도서관은 공허함을 채워주는 새로운 취미를 제공해주는 존재로 다가왔다. 오늘도 도서관에서 소확행을 채우고 있다.

· 김설희(상록구 사동)

독자
투고

시골 아랫목의 추억을 안산에서

추운 겨울 매서운 바람이 귓가를 스쳐갈 때면 어깨와 목은 잔뜩 움츠러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마치 거북이 같은 모습으로 거리를 걷곤 한다. 지나가다 보이는 포장마차에서 파는 어묵 국물 한잔 먹고 싶은 충동과 함께 그 옆에 있는 군고구마 굽는 냄새에 침을 꿀꺽 거리기도 한다. 지금이야 군고구마 굽는 전자제품이나 마트에서 파는 다양한 제품의 어묵 재료들이 많아 사서 집에 와 해먹으면 그만이지만 그래도 추운 날 노상에서 먹는 재미는 여지없이 솔솔 하다.

오래전 이야기도 아니지만 80, 90년대만 해도 시골에서는 보일러 시설이 없어 산에 가서 나무를 해와 아궁이에 불을 지펴 방바닥을 따뜻하게 만드는 온돌식 구조의 방이 대부분이었다.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불을 때곤 했는데 어찌나 뜨거

운지 지금으로 따지면 현대판 찜질방이라고 할까! 그런 방에도 앉을 때나 잠을 잘 때는 나름대로 규칙이 있었다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윗분들은 아궁이와 가까운 아랫목에 앉으시고 아랫사람은 윗목에 앉는 어른을 먼저 생각하는 작은 효의 시작이었다. 새벽이 되면 식은 방을 다시 따뜻하게 해야 하니 어



머님은 어두컴컴한 새벽에 일어나셔서 시부모님 편케 다시 아궁이에 불을 넣어야만 했다. 불이 다 타고 남은 장작불을 화로에 담아 지금의 난로처럼 사용하는데 그 불에 그해 수확한 고구마며 콩이며 구워 먹을 수 있는 것들은 죄다 올려놓고 먹을 것 없던 시절 간식거리로 대신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 그래도 그때는 그게 최고이며 행복이었다.

요즘은 안산시는 한파 대비 버스승강장에 온열의자를 설치했다. 추운겨울 버스를 기다리며 조금이라도 얼은 몸을 녹이기 위한 시민을 위한 배려일 것이다. 예전 우리가 어려웠을 때 아궁이에 불을 지펴 구들장 달구어 앉아 있을 때를 생각해보면 그런 온열의자 운영이 큰 도움이 될 거라 필자는 생각한다. 하지만 의자는 적고 기다리는 사람은 많을 테니 우리가 버스타면 노약자석이 있듯이 주위를 보고 그 자리에 온열의자를 어르신들에게 우선 양보해 드리는 모습은 어떨지...

온열의자 설치를 계획해 조금이나마 시민들에게 따뜻함을 제공하고자 하는 안산시의 마음에 너무 감사드린다. 올 겨울 버스 기다리며 느껴보지 못한 따뜻함이 마음속에서는 벌써 훈훈하게 다가온다.

· 전영애(상록구 본오동)

안산시 시정소식지는
무료 구독이 가능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구독·주소변경 신청

메일 ansannews@korea.kr
전화 031-481-2042



안산시 시정소식지에서는 시민여러분의 다양한 사연을 모집합니다.

※ 개인의 연락처, 주소 및 글과 관련된 사진을 함께 보내주세요.

※ 시민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이 채택된 경우 소정의 원고료(5만원 이상)는 다른 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독자투고 및
전문가 칼럼

주제 생활담(자유주제)
특색있는 안산시 이야기
법률상식 / 미담(칭찬) 사례

분량 · A4용지 2/3 이상
· 관련 사진

나비잠

주제 생후~24개월 전후 아이를 둔 가정의
출산·육아 이야기

분량 · A4용지 절반
· 아기 사진 1장

안산시에 바란다

주제 안산시가 고쳤으면 하는 불편사항 또는
도입했으면 하는 정책을 제안해주세요.

분량 · A4용지 절반
· 관련 사진

2020년도 안산시 공동주택지원 안내

◇문의: 안산시 안전사회지원과(031-481-2164)

◇문의: 안산시 농업기술지원과(031-481-3765)

◇ 문의 : 안산시 단원보건소(031-481-6384)

◇문의: 안산시 대중교통과(031-481-2961)



2019년 10월		11월		12월		2020년 1월		2월		3월				
18 (금)	4 (월)	15 (금)	17 (일)	7 (토)	17 (화)	16 (목)	15 (토)	13 (금)	16 (월)	21 (토)	23 (월)			
D-180	D-163	D-152	D-150	D-130	D-120	D-90	D-60	D-33	D-30	D-25	D-23			
	정당,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전과기록 조회개시일 (별급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	인구수등의 통보기한 (인구의 기준일 : '19. 10. 31)	국외부재자신고 개시일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등록발송수량 공고·통지기한	예비후보자등록 개시일 정당선거사무소 설치·변경 신고 시·도 사이버 공정선거지원단 구성·운영 개시일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기한 통·라·반장 등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려는 때 사직기한	공정선거지원단 추가 구성·운영 개시일 (사전)투표관리관 위촉·운영 개시일	시각장애인선거인과 그의 세대주의 성명·주소 통보기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선거에 입후보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기한 읍·면·동위원회가 대행할 직무의 범위 등 결정·공고·통지기한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을 위한 방송시설명·이용일시·시간대 등 통보기한	무소속후보자추천장 검인·교부개시일 예비후보자등록발송을 위한 세대주명단 교부 신청기한	선거벽보, 선거공보 작성·제출수량 등 공고기한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을 위한 방송시설과 일정 지정·공고기한 투표구 명칭·구역 일괄공고 기한			
【재외선거】 •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19. 10. 18 ~ '20. 5. 15) • 국외부재자신고기간('19. 11. 17 ~ '20. 2. 15) • 재외선거인 (변경)등록신청(- '20. 2. 15) • 재외선거인명부 및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2. 26 ~ 3. 6) • 재외선거인명부 등 확정(3. 16)														
【선상투표】 • 선상투표 선박현황 통보('19. 12. 10까지) • 선상투표신고 수신 팩시밀리번호 통보('19. 12. 24까지) • 선상투표신고서 및 안내문 등 선박회사 제공(1. 15까지) 및 선박의 선장에 송부(3. 16까지)														
3월				4월										
24 (화)	26 (목)	27 (금)	30 (월)	1 (수)	2 (목)	3 (금)	5 (일)	6 (월)	8 (수)	10 (금)	11 (토)	13 (월)	14 (화)	15 (수)
D-22	D-20	D-19	D-16	D-14	D-13	D-12	D-10	D-9	D-7	D-5	D-4	D-2	D-1	D-Day
선거인명부 작성기종일	후보자등록 (오전 9시 ~ 오후 6시)		예비후보자 등록발송기한 경력방송원고 송부기한	선거벽보 제출기한	선거기간 개시일 선거인명부 (거소·선상투표 신고인 명부) 사본교부 신청기한 후보자의 전과기록 열람 (선거기간중)	선거공보 제출기한 선거벽보 첨부기한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기한 투표안내문 (점자형포함) 발송기한 (선거공보 동봉) 거소투표용지 발송기한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군인 등 신청자에게 선거공보 발송기한	선상투표용지 전송기한 사전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및 운영기간 공고기한	사전투표참관인 선정·신고기한 투표용지 모형 공고기한	개표소 공고기한 사전투표 (오전 6시 ~ 오후 6시)		투·개표참관인 선정·신고기한 사전투표소 투표자 반영 선거인명부 출력	투·개표소 설비기한 투표용지 및 투표함 송부·인계기한	투 표 (오전 6시 ~ 오후 6시) 개 표
					〈4. 2 ~ 4. 15〉 선거기간									
【3. 24 ~ 3. 28】 선거인명부작성기간, 거소·선상투표신고기간,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작성기간,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기간 【3. 29】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확정			【3. 29 ~ 3. 31】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4. 1 ~ 4. 2】 선거인명부 누락자 등재신청기간	【4. 3】 선거인명부 확정	【4. 4 ~ 4. 15 투표마감시각】 선거인명부 등재여부·등재번호 및 투표소 위치에 대한 인터넷 확인기간								
【재외선거·선상투표】 • 재외투표(4. 1 ~ 4. 6) • 선상투표(4. 7 ~ 4. 10)														
【'19. 10. 18 ~ '20. 4. 15】 • 정당·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 등의 선전행위 금지[§89②]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설치 등의 금지[§90①] •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93①]														
【'20. 1. 16 ~ '20. 4. 15】 • 의정활동 보고 금지(인터넷홈페이지나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 또는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방법은 가능) [§111①] •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와 관련있는 자서의 출판기념회 개최 금지[§103⑤]														
【'20. 2. 15 ~ '20. 4. 15】 •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정당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금지(당내경선 대체 여론조사는 가능) [§108②]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86②]														